



임기를 마치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동문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께,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로 임기를 끝낸 전 동창회 회장 남명호입니다. 어느덧 저의 회장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 동창회 내부적으로도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정치·경제 상황, 그리고 한국 의료계가 겪고 있는 여러 변화 속에서 우리 동창회 역시 쉽지 않은 과제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동문님들과 Executive Council과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임원분들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동창회의 여러 사업들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의미 있는 성과들도 함께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학술대회를 무사히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 현실적인 제약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어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에 동문들이 함께 모여 교류하고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동문 여러분, 먼 고국에서 와주신 서울의대 교수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서울의대총동창회 임원진을 비롯하여, 행사 준비와 진행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 임기 동안 우리 동창회가 여러 귀중한 기부와 후원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고인이 되신 동문 선배님들의 뜻을 기리고자 유가족과 사모님들께서 Memorial Fund와 장학금 등으로 소중한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적 후원을 넘어, 고인께서 평생 간직하셨던 서울의대 후배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의학과 사회에 대한 귀한 뜻을 우리 동창회가 이어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창회는 이러한 유지를 무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앞으로도 그 뜻이 후배 지원과 연구, 장학, 그리고 동문 사회의 발전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의 임기 중 동창회 운영과 재정 측면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논의를 거쳐 회비 조정과 장학 기부금 일부의 운영비 전환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창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결정에 선뜻 동의해 주시고, 지난 호 발행 이후 예년보다 많은 회비 납부와 기부금으로 화답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동창회의 여러 사업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학사업과 연구 지원 사업, 젊은 동문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은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서울의대와 의 협력 사업, 후배들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동문들의 연구 활동을 격려하는 Grant 사업 등은 우리 동창회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더 많은 젊은 동문들과 후배들이 동창회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금, 제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아직 차기 회장이 선임되지 못한 상황에서 동창회가 당분간 Executive Council 체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동문 여러분께서 지혜를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시리라 믿습니다. Executive Council을 중심으로 동문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 동창회의 운영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월 1일부터 4개월 동안 임시 Chair을 기꺼이 맡아 주신 강민중 동문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차천이든 타천이든 동창회를 위해 헌신해 주실 차기 회장님이 선임되어, 우리 동창회가 다시 안정된 리더십 아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도와주신 모든 동문 선배님들, 후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ecutive Council과 여러 위원회에서 동창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임원분들, 오랜 기간 행정 업무를 맡아 헌신해 주신 Jamie Kim 전 사무장님, 어려운 시기에 새로 직책을 맡아 너무나 많은 업무를 빨리 파악하시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시는 박귀병 현 사무장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창회를 위해 마음을 보태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의 임기를 마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점도 있었고, 더 잘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의대 북미주 동창회가 동문 간의 친목을 넘어, 후배들을 돕고, 의학 발전에 기여하며, 고국과 미주 사회를 잇는 의미 있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동문들과 후배들이 동창회 안에서 더 많이 참여하고 교류하며, 우리 동창회의 다음 세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 역시 회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한 사람의 동문으로서 우리 동창회의 발전을 계속 응원하고 돕겠습니다. 동문 여러분과 가족분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남명호(81, 버지니아) 드림

Executive Council Meeting Report

Executive Council은 2026년 6월 28일(일) 화상회의(Zoom meeting)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7월부터 시작되는 임시 운영 체제와 향후 동창회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강민중 동문

차기 회장이 선임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차기 회장 선임 전까지는 Executive Council 구성원 중 한 분이 일정 기간 임시운영위원장을 맡아 동창회 운영을 대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강민중(91) 동문께서 임시운영위원장을 맡아 동창회 사무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Executive Council 회의를 소집하며, 동창회의 주요 업무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사회 및 위원회 구성, 서울의대와의 협력, 재정 현황, 연구기금 및 장학사업 진행 상황, 故 박세준 Memorial Primary Care Fund 공고 준비, 회원 회비 및 기부금 납부 현황 등이 보고되고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본교 학생들의 미주 실습 일정과 각 지역 동문들의 환영 계획, 그리고 동문 수상 소식도 함께 공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번 호에 함께 실린 기사 및 보고, 광고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ecutive Council은 임시 운영 체제하에서도 동창회의 주요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민중 보고

함춘미주공로상 및 학장상 수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수여하는 2026년도 제12회 함춘미주공로상 및 제9회 학장상 수상자가 확정되었다.

함춘미주공로상은 노영일(68), 김정아(76) 동문과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 장학위원회(위원장: 이익재(08))가 수상하였다. 학장상은 임경빈(99) 동문이 수상하였다.



노영일(68)



김정아(76)



임경빈(99)

함춘미주공로상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발전에 공로한 북미주회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며, 학장상은 미주회원 중 우수 연구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번 수상과 함께 노영일(68), 김정아(76), 임경빈(99) 동문은 수상 상금을 전액을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에 쾌척하기로 하였다. 상금은 7월 중 입금될 예정이다.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는 세 동문의 뜻깊은 기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상은 모교 발전과 의학 발전, 그리고 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온 미주 동문들의 공로를 기리는 뜻깊은 자리이다. 북미주동창회는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미주 동문들의 모교와 동창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故 박세준 Primary Care Fund 운영 계획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는 故 박세준(64) 동문을 기리는 Primary Care Fund 운영 계획을 마련하였다. 故 박세준(64) 동문의 배우자인 박화자 여사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COVID-19 환자들을 보살피신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북미주동창회에 \$200,000를 기부하셨다(고인의 두 아들로 Brian Park과 Eugene Park이 있다). 북미주동창회는 이 귀중한 기부금을 고인의 유지에 따라 Primary Care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기금 운영은 Green Project Committee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간 예산은 \$12,500 규모로 우선 Community Health Project를 가장 우선적인 지원 분야로 정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먼저 공모하기로 하였다. 적절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Primary Care 분야 진출을 계획하는 젊은 동문들의 학회 발표, 교육·훈련, 레지던트 지원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이어 Primary Care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Community Health Project 공고의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은 이번 호 시계탑에 함께 실린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 공고는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 정회원뿐 아니라 동문 자녀인 Affiliated Member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으므로, 동문 여러분께서는 주변의 관심 있는 분들께 널리 알려주시고 많은 지원을 독려해 주시기 바란다.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는 故 박세준 동문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귀한 기부를 해주신 박화자 여사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기금이 Primary Care 발전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관련 공고 제4면 참조>

2026년도 미주동포장학생 모집 공고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는 2026년도 미주동포장학생 공고를 진행한다. 올해 미주동포장학금은 총 13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접수 마감일은 2026년 8월 23일이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은 이번 7월호 시계탑에 실린 광고를 참고하면 된다.

올해 장학금은 김태웅(63) 장학금, 김일영(71) 장학금, 故 조세진(71)-조영 여사 장학금, 故 김승삼(68)-김형난 여사 장학금, 차재철(68) 장학금으로 마련되었다.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는 미주 지역 한인동포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을 위해 귀중한 장학금을 후원해 주신 여러 동문과 유가족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집 공고 제2면>

/ 동 / 문 / 및 / 지 / 부 / 소 / 식 /

미 중서부 동문 현황(2026년 7월)

시카고 한국일보는 [시카고 한인 개척자들]이라는 연재 기사에 서울의대 동문 두명을 등재 하였다. 2026년 4월 7일자 제5회 기사에 김윤태(67, 시카고) 동문이, 그리고 2026년 4월 17일자 제8회 기사에 홍건(70, 시카고) 동문이 등재 되었다.

김윤태 동문은 “의사에서 변호사로 끝없는 도전” “세대를 잇는 문화적 반석을 다지다”라는 부제로 그의 일생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의사로서의 봉사는 물론, 봉사회(복지회) 이사장, 한미 장학재단 중서부 회장, 그리고 시카고 한인 문화회관 회장과 이사장을 거치며 시카고 한인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420만 달러를 투입한 400석 규모의 다목적 문화공관인 BISCO Hall 건립은 그의 대표적 업적으로 남는다.

홍건 동문은 “행동하는 의사화가”라는 부제로 소개 되었으며 시카고에서 40여년간 영상의학, 핵의학을 이끈 이민 1세대 전문의였다. 그는 또 30여 개국 의료 봉사로 인생의 십일조 실천하고, 그림은 기록이자 섬김이라하며 전 시수익을 다시 장학과 의료지원으로 환원하였다. 그리고 여성 사회 취약계층 섬김으로 멈추지 않는 봉사 활동과 업적을 소개하고 높이 평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chicagokoreatime.com에서 볼 수 있다.

홍건 동문은 지난 7월 초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서 열린 기독교사회(130개국에서 1,200명의 기독교사 참석)에 참가하였다. 홍건 동문은 그간 여러번의 미술작품 전시회에서 모은 수익금으로 50명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항공료를 전액 부담하였다. 다음 모임은 4년 후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한다.(홍건 동문 참관기 12면 참조)

버지니아 지부 및 동문 소식



지난 5월에 모인 71년 졸업 동문들: 박동수, 조병선, 배성호, 이상천, 양성훈, 김제홍



2026년 7월 17일 저녁, George Washington 대학에 임상실습 온 본교 학생들을 환영하는 모임이 채무원(65), 서윤석(68), 김병오(69)부부, 유영준(74), 남명호(81), 장세권(01) 동문과 사진 좌로부터 김규민(정신과 지망) 부부와 딸 3살, 김강현(외과 지망), 두창호(내과 지망)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버지니아 Fairfax에 위치한 조선회로 레스토랑에서 있었다.

한국 의과대학 교육과정은 6~8년에서 이제는 예전처럼 6년제로 통일되었고, 서울의대는 한 학년 학생수는 140명, 학비는 1년에 약 1천만원(약 8,000불)으로 사립대학의 절반 수준이다. 군복무를 위생병으로 18개월에 마쳤고 미국 병원에 matching이 되어 인턴십을 시작한 졸업생은 전국에서 80명, 그중 8명이 서울의대 출신이다. 의료대란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 글 서윤석

고 조세진-조영 여사 장학금

세계적인 소아 유전 학자이며 오래동안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학술위원장으로서 봉사하신 故 조세진(71) 동문의 부인 조영 여사께서 고인의 뜻을 받들어 약정하신 장학금 2만 달러(4천 달러 운영비 포함)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내 오셨습니다.



2026 SNUCMAA Research Grant 수상자 선정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는 2026년도 SNUCMAA Research Grant 수상자로 이준구(09) 동문을 선정했다. 선정된 연구 제목은 “Defining a high-risk subset of pulmonary carcinoid tumors through genomic profiling”이다. 이준구 동문은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소속으로, Computational Oncology 및 Thoracic Oncology 분야에서 연구와 진료를 수행하고 있다.

SNUCMAA Research Grant는 북미주 지역 동문들의 연구 활동과 학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연구기금을 지원해 주신 한승진(76) 동문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연구가 의미 있는 학문적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6년도 Green Project 장학생 선발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는 2026년도 Green Project 장학생 5명을 선발하였다. 그린 프로젝트 장학금은 서울의대 학생들의 미주 연수와 현지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올해는 진흥우(62) 동문과 故 장세권(63) 동문의 귀중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진흥우 장학금 수혜자는 권혜윤, 두창호, 양혜림 학생이며, 장세권 장학금 수혜자는 오현지, 이원준 학생이다. 각 학생에게는 \$2,000이 수여되었으며, 학생들은 7월 중 미주 내 여러 병원에서 실습을 수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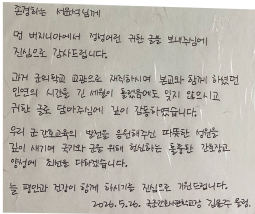
Reader's Column - 편집실에 온 편지

나수섭(1950년 졸업) 선배님의 편지

서윤석 선생 안녕하십니까?
지난 5/6/2026 자로 특별히 보내주신 시계탑 2026년 4월 20일호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받고도 오늘까지 약 3주일간 무소식으로 있다가 이제서야 한자 써서 감사의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묘하게도 나는 이 높은 나이에 10여 년간 플로리다 St. Augustine에서 편안히 있다가 여기 메릴랜드에 사는 만아들의 권유에 따라서 정들었던 World Golf Village를 떠나와서 이곳 Millars Grant, Ellicott City Independent Living Facility로 들어왔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거처야 되는 내 인생의 여정표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나는 평양에서 성장하여 원수의 38선을 결사적으로 넘고 서울에 와서 10년 살고 나서 운명에 따라 40세에 미국으로 건너와(전 서울의과대학교수였으나) 7년에 걸친 Residency on Fellowship을 극복하고 internal medicine and Hematology-Oncology의 Private Practice를 오랫동안 하였었지요. 2016년에는 이런 일생을 그저 지나쳐버리기에는 너무도 아까워서 숙원의 자서전을 집필도 했습니다.
이제 Super Senior age에 들어오니 만사가 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세워놓았던 금자탑을 뒤로하고 도미하여 유감없이 활약하는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 형제적 우의를 유지하여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 나수섭(1950년 졸업, 현 100세) May 27, 2026

지난 호에 소개된 '그녀들의 이야기'에 대한 감사 편지

존경하는 서윤석님께
먼 버지니아에서 정성어린 귀한 글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 군의학 교관으로 재직하시며 본교와 함께 하였던 인연의 시간을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잊지 않으시고 귀한 글로 담아주심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우리 군 간호교육의 발전을 응원해주신 따뜻한 성원을 깊이 새기며 국가와 군을 위해 헌신하는 훌륭한 간호장교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평안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2026.5.26. 국군간호사관학교장 김윤주 올림



Higher Benefit to Forgetting:

When you reap the harvest of your field and forget a sheaf, do not return to retrieve it. The bundle of wheat must be left for the stranger, the orphan, and the widow in your midst.
I was profoundly touched by this seemingly simple and humble tradition. I think it would appeal to most people, religious, non-religious, and a-religious people alike.
This paragraph was taken from the book **Heart of a Stranger** by Angela Buchdahl, a New York Times bestseller in 2025. One of my dear family members gifted this book to me. I myself would not choose a book related to religion for my own reading.
Buchdahl was born in Seoul to a Buddhist mother and a Jewish American father.
She graduated from Yale University before beginning cantorial and rabbinic education at Hebrew Union College. She went on to become the senior rabbi at central synagogue, the first woman and first Asian to be named senior rabbi, leading one of the largest and most influential congregations in the world. I am often amazed by how brilliant and talented Koreans are. - Hee Hyoun Chung (197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2026년도 장학생 선발 요강 공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에서 아래와 같이 2026년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대 상:**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로서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 우수한 학업 성적과 특기가 있는 한국계 학생(Students of Korean Heritage)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자. (예년에 서울의대동창회 장학금 혜택을 받은 사람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
- 모집인원:** 13명 이하 **장학금:** 각 \$2,500에서 \$4,000
- 구비서류:** Application form, original transcript, personal statement, letters of recommendation, parents' income tax return first page
자세한 내용은 snucmaaus.org webside 우측 상단 "Forms"의 "Scholarship Application Instruction" 참조
- 응모마감:** by midnight EST(EDT) August 23, 2026 **발표:** email을 통한 개별 통보
- 접 수:** 모든 필요서류를 PDF file로 변환 후, single package로 합본하여 email로 응모(우편물은 심사대상에서 제외)
eMail: snucmaa.scholarship@yahoo.com (All communication via email only).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장학위원회

삼가 故人들의 冥福을 빕니다

한원봉(50): 뉴저지 주에서 지난 5월 6일 별세하셨습니다.
송재현(52): 일리노이 주에 거주하시다 5월 1일 별세하셨습니다.
이장섭(58): 라스베가스에서 거주하시다 5월 21일 별세하셨습니다.
오국상(61): 피츠버그에서 거주하시다 5월 1일 별세하셨습니다.
이용길(62): 콜로라도 덴버에서 지난 해 2025년 5월 18일 별세하셨습니다.
김택수(63): 라스베가스 자택에서 5월 12일 별세하셨습니다.
김갑중(63): 일리노이에 거주하시다 지난 2월 2일 별세하셨습니다.
이기황(63): 펜실베니아에서 거주하시다 작년에 별세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준식(67): 캘리포니아 Irvine에서 5월 9일 별세하셨습니다.
윤혜숙(김풍영 72, 동문부인) : 버지니아에 거주하시다 7월 17일 별세하셨습니다.

故 신규호 박사를 떠나보내며



콘트라바스 연주자이기도 한
신규호(좌측 첫번째) 동문

항상 웃는 얼굴로 우리 곁을 지켰던 훌륭한 의학자
이자 진실한 벗, 그리고 나의 중고등학교, 의대 시절의
동문인 신규호 박사가 2026년 4월 18일 향년 81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고인의 장례식은 2026년 4월 21일,
수많은 가족과 친지, 그리고 벗들의 깊은 애도 속에서
엄수되었다.

1944년 5월 9일생인 고인은 다가오는 생일을 앞두고
먼 길을 떠나 주변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1962년 경북
고등학교 (37회), 1968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한 후 캐나다로 이주하여 방사선 종양학(Radiation
Oncology) 전문의로서 독보적인 길을 걸어왔다.

고인은 토론토 대학원을 거쳐 McGill, Calgary 대
학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후 클리브랜드 클리닉과 버펄로 대학 주임교수를 역

임하였고, CCS Oncology Center의 회장 겸 CEO로서 의료 행정과 경영에서도 탁
월한 성취를 이루었다. 2022년 은퇴 후에는 애틀랜타에서 평온한 여생을 보냈다.

중학교 2학년 시절, 아현동 자택을 방문했을 때 보았던 그 씩씩하고 친근한 미소
가 아직도 선하다. 고인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항상 웃는 얼굴과 다정한 태도는 그가
의사로서, 또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였을 것이다.

부인 김원용 여사와의 깊은 금슬은 동기들 사이에서도 늘 화제였다. 캐나다 로키
산맥 여행길, 달리는 버스 속에서 부인을 향해 진심을 담아 노래하던 ‘백만 송이 장
미’는 그의 뜨거웠던 사랑을 보여주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다. 훌륭히 장성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 중인 2남 1녀는 고인이 남긴 가장 값진 유산일 것이다.

고인의 인생은 한 편의 장엄한 교향곡과도 같았다. 어린 시절부터 손에서 놓지 않
았던 바이올린과 기타, 그리고 중년 이후 마주한 콘트라바스에 이르기까지, 음악은
그의 평생을 관통하는 동반자였다. 특히 버펄로 교향악단(Buffalo Philharmonic
Orchestra) 무대에 설 정도로 뛰어났던 그의 연주 기량은, 그가 매사에 쏟았던 열정
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준다.

올랜드 자택에 초대받았던 그날, 고인이 콘트라바스의 목직하고도 따뜻한 음색으
로 들려주던 열가의 ‘사랑의 인사(Salut d’Amour)’는 지금도 나의 귓가에 또렷하게
남아 있다. 거대한 악기를 감싸안고 선율을 자아내던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을 늘
따뜻하게 감싸안던 그의 성품과 참 닮아 있었다.

이제 우리는 고인을 떠나보내며, 그가 사랑했던 낮은 저음의 콘트라바스 선율처럼
깊고 평온한 안식을 기원한다. 게리 카(Gary Karr)가 연주하는 ‘Amazing Grace’
의 선율에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실어 보낸다. - 이진일(68, 남가주)

준식 형 영전에

형! 친형이 없던 나에게 오랫동안 그 자리를 메워 주었던 나의 형님.
정일아! 하던 구수한 형님의 목소리 너무 그리네요.
큰 키는 아니어도 딱 벌어진 어깨에
그 옛적 사관생도의 의연했던 모습이 그림습니다.
잠깐 솟구쳤다 사라진 파도처럼 그렇게 사라져 간 나의 형님.
그래도 또 보고 싶네요.
정일아! 하면서 걸걸한 웃음소리와 함께 내 곁을 함께 걷고있는 나의 형님
- 박정일(67, 시카고)

김태웅(63)-김정화 여사 장학생 Pauline Kange의 감사편지

Dear SNUCMAA-NA,

Upon becoming a recipient of the SNUCMAA-NA
Taewoong Kim, M.D., and Mrs. Jungwha Kim
Scholarship 2025 in October, I have had wonderful
opportunities towards my career in serving others
through medicine. The financial support has been a huge
factor in allowing me to take these opportunities and
ignite my interests in both overseas missions and clinical
research.

The scholarship money was used in several ways to
help pay for the Urbana conference, my research
experience, and MCAT studying. The Urbana conference
is a national conference located in Phoenix, Arizona, that
focuses on global missions. I listened to doctors sharing
their stories serving across the globe and received
resources, networks, and
opportunities to serve under-resourced populations. I was able to connect with larger
organizations like Christian Community Health Fellowship, which is a network of
healthcare providers wishing to serve the most vulnerable and poor. I am now
interested in working one clinical rotation overseas in rural medicine and attending
medical missions trips. The scholarship was also used to pay for a flight back to
campus during my January-term so that I can work full-time for my biology thesis. I
conducted research studying portosystemic shunt in mice, a vasculature abnormality
that bypasses blood flow in the liver, and its effect on tryptophan metabolism in the



Handling a mouse to prepare
for an intraperitoneal injection

이준식 동문을 보내면서

이준식 동문과 저는 남가주 Apple Valley에서 산부인과-마취 인연으로 10 여년
간 같은 병원에서 일을 했으며 은퇴 후에도 25년간을 형, 아우 사이로 지내왔던 후배
동문입니다. 고인은 Certified by the American Board of OB GYN 으로서 새 생
명을 탄생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그의 환자의 수술시 마취는 주로 제가 담
당하였기에 그의 인품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능하였고
손재주도 남달리 뛰어나서 수술실에서 mes(scalpel)를 손에 잡는 순간 모든 시술
과정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재능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완성해내듯
훌륭했습니다. 수술의 마지막 부분인 skin suture를 할 때면 언제나 짙막한 유머를
터뜨려 수술실 분위기를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지요. 주일이면 교회에 출석하면서
같은 구역원으로 교회 행사에 동참하였고 특히 우린 steak를 좋아해서 맛집을 찾아
다녔으며 때로는 몇가정이 어울려 바다낚시에서 잡은 신선한 생선을 그자리에서 얼
큰한 찌개를 만들어 먹으면서 즐겁게 지냈던 장면도 그리워집니다. 오랜 투병생활
중에서도 사랑하는 부인의 간절한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구원에 대한 확
신을 하셨기에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리라 믿어집니다. 지난
5월 23일, 고 이준식 집사님의 천국환송예배에는 많은 선 후배 동문 부부들이 참석
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참석자는 이덕송(60), 권영
조(63), 조한원(63), 임충수(63), 김태웅(63), Mrs. 김선원(64), 이정구(65), 이근웅
(67), 강명식(67), 이희영(71)입니다.
- 이덕송 (60, 남가주)

오국상(61) 동문의 자제 Young Oh eulogy



“My dad served in the medical corps of the Korean Air Force. Coming
to America was always a big dream come true for him in so many ways.
My parents came to America very poor and had to make do without a lot
and depend mostly on the kindness and generosity of others. He was
allowed to study at Mass General Hospital of Harvard and became the
1st foreign graduate of the Harvard medical residency program in
America and within just 3 years, earned the top resident award. In 3 years, he became
an associate professor at Johns Hopkins. My dad was nicknamed ‘Jet’ by some
colleagues when he was at Johns Hopkins because of how quickly he walked. A
common theme repeated by so many of my father’s former colleagues, regardless of
whether it was from Children’s hospital, Allegheny General Hospital, UPMC,
University of Chicago or Johns Hopkins, is that he had a passion for teaching, was a
great mentor in guiding others, & had a very sharp wit & intellectual prowess. He also
was known for making astute observations, was a brilliant scholar and researcher and
was also mentored by some of the pioneers in the field of radiology who are widely
talked about by and whose publications are widely read by physicians today.”

김갑중(63) 동문의 자제 Eulogy

Dr. Kap C. Kim, MD, age 91, passed away peacefully at home in Sterling, IL on
February 2, 2026, with family by his side. Kap was born on January 1, 1935 in Seoul,
South Korea, the son of Yong Chan Kim and Young Seung Lee. He married Youn Hae
Lee on April 29, 1967 in Grosse Pointe, MI, and she preceded him in passing on
October 14, 2020.

Kap earned his M.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He
completed his internship at Bon Secours Hospital, residency in Pediatrics and Internal
Medicine at Detroit General Hospital, and residency in Internal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Hospitals and Clinics.

Kap enjoyed reading, fishing, spending time in nature, watching baseball, following
current events, listening to classical and folk music, and enjoying his favorite Korean
cuisine. He was deeply dedicated to his work as a pediatrician, providing
compassionate care to his patients at Sterling-Rock Falls Clinic from 1972 until his
retirement in 2009. He was known for his gentle manner, clinical skill, and sincere
compassion for those he treated. Above all, he cherished his family and will be
remembered for his wisdom, kindness, and quiet devotion to those he loved.

He is survived by his son, David, and daughter, Susan, both of Sterling, as well as
nieces and nephew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He was preceded in death by his wife, Youn Hae Kim; his daughter, Alice Kim; his
parents, Yong Chan Kim and Young Seung Lee; his brothers, Woo Choong Kim and
Chul Choong Kim; his sisters, Kyung Ja Kim, Kyung Sook Kim, Kyung Hi Kim, and
Kyung Wha Kim.

A private family service will be held at McDonald Funeral Home in Sterling, and
burial will take place at Riverside Cemetery in Sterling. A Celebration of Life will be
held at a later date. In lieu of flowers, memorial donations may be made to the CGH
Health Foundation.

body. This can potentially lead to clinical applications in humans with the same
vasculature disease in their livers. Lastly, the scholarship money was used to purchase
an MCAT appointment in September 2026. With several months ahead, I have been
slowly learning and studying for the test through flashcards, practice questions, and
video strategies. Looking forward, the rest of the scholarship would be used to
purchase MCAT third-party resources and pay for medical school applications.

After attending the Urbana conference, it became even more clear that I want to
help others in need through healthcare. After hearing from multiple speakers from
various careers, the testimonies of global doctors and their services excited me most
as I envisioned myself serving under-resourced communities across borders. I have
also reached out to Williams alumni who have worked at 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s (FQHCs), which are community-based clinics supported by government
grants to provide comprehensive services to underserved populations, regardless of
ability to pay. I envision myself working at an FQHC during my gap years as a
medical assistant to provide care for people often coming from low-income
backgrounds, limited status, and little to no healthcare. Additionally, I also see myself
helping others locally, such as making and distributing care packages for daily
workers with Love Hope Together Organization, during my gap years while studying
for the MCAT.

Once again, I am so grateful for your trust and confidence in me as a recipient of
the SNUCMAA-NA Taewoong Kim, M.D., and Mrs. Jungwha Kim Scholarship 2025.
This scholarship both encourages me and keeps me accountable for the long journey
ahead. Reminded of this wonderful Korean community, it gives me strength to persist
during the challenging or mundane parts of life.

Thank you so much again! Sincerely, Pauline Kang



나의 임상경험 수박색의 피 색깔

김 규 호(64, 시카고)

소아과를 개업하고 4,5년쯤 된 1970년대 후반에 경험한 일인데,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겠기에 한번 올려보고 싶네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저녁 8시경 숨이 많이 가쁜 기관지 천식 환자가 응급실로 내원했다고 당직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환자였지요. 일단 응급 기관지 확장제인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주라고 하고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열네 살짜리 소녀가 숨을 정말로 요란스럽게도 쉬고 있네요. 그런 요란한 숨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기관지 확장제인 아미노필린(aminophylline)을 추가로 주고 있는데, 혈액검사 결과에 혈당이 400mg/dL 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교과서에서 보지만 했던 '쿠스말 호흡(Kussmaul breathing: 당뇨병 성케톤산증(DKA) 등의 심한 대사성 산증에서 나타나는 보상성 과호흡)'이었던 거예요. 그 요란한 숨소리가! 아찔했고 정말 부끄럽네요. 당장 치료 방침을 DKA에 초점을 맞추어 바꾸고 추가로 혈액검사를 하는데, 임상병리사가 갖 채혈한 시험관이 얼핏 눈에 들어왔어요. 동맥혈 채취를 지시한 적이 없었기에 분명 정맥혈이었을 텐데, 색깔이 수박을 믹서기에 갈았을 때처럼 밝은 선홍색에 허연 거품은 왜 그렇게 많이 뿜뿜 떠 있는지, 이게 산 사람의 피가 맞는가 의아했을 정도로 처음 보는 피 색깔이었어요. 색깔에 둔한 저였지만 주황색이었다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밝은색의 피였던 거예요. 단언컨대 이런 경험을 해보셨거나 들

어보신 적이 있는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혈액 검사 수치도 엉망이었어요. pH가 낮아서 6.9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편집자 주: 정상은 7.4 정도), 그때는 검사 오류라고 웃고 넘겼다고요. 산 사람의 피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기에 말입니다. 환자 상태는 숨소리만 요란했지, 다 멀쩡했어요. 의식도 멀쩡했고 쇼크 상태에 빠진 적도 없고 말이에요. 쿠스말호흡을 잠시나마 천식으로 착각한 그 당혹감에 무척이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일단 심한 당뇨병성 케톤산증임을 알자마자 7,8년 전 레지던트 시절의 잊지 못할 경험을 되살려 응급조치를 해낼 수가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회진 때 간호원이 그러네요. 임상 병리 과장이 다녀갔다고요. 환자가 멀쩡히 살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하고 가더라고요. 어떻게 제가 이 위기를 벗어났을까요? 옛날 얘기 좀 해야겠네요. 한국 국립중앙의료원(NMC) 소아과에서 수련 받은 2년 3개월 동안 당뇨병 환자는 한 번도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희귀한 환자들은 많이 보았지만 그 흔한 기관지 천식이나 세균성 뇌막염 환자를 본 기억이 없을 정도예요. 미국에 와서 시카고 브론즈빌에 위치한 Michael Reese Hospital (MRH)에서 소아과 수련을 받았는데, 그때 당뇨병성 케톤산증을 보았지요. 소아과 학술지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를 한국 NMC 시절부터 즐겨 읽으며 끼고 살았어요. 오죽 좋아했으면 미국에 정착한 후 제일 먼저 구한 것이 이 학술지 전

집이었어요. 전집을 구매하니 제 이름을 금박으로 박아주던데, 비쌌어요. MRH에서 수련을 시작하기 몇 달 전에 당뇨병성 케톤산증 치료에 관한 리뷰 논문이 실렸는데, 참 자세하고 그럴듯했어요. 그대로만 하면 어떤 심한 당뇨병 환자가 와도 살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좋은 논문이어서 수첩에 자세하게 적어 놔줍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지요. 지금도 서랍 어딘가에 그 수첩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밤 외래를 통해 열 살 가량의 환자가 심한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입원하는데 혈당이 거의 600mgm% (편집자 주: mgm%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단위로, 지금은 mg/dL가 널리 쓰임)이었어요. 겁이 났겠 나더군요. 난생 처음 보는 당뇨병 환자였지요. 논문에서 읽은 그대로 따라 하기로 결정했어요. 탈수현상을 고려하니 수첩에 적은 대로 생리 식염수를 주려니까 1분에 60 방울 이상을 주게 되네요. 겁이 나서 양팔에 주사를 시작했어요. 기막히게도 논문에 쓰여있는 대로 제 시간에 맞추어 혈당도 내려오고 전해질 불균형도 교정되고,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2년차나 당직 전문의한테 전화 한번 없이 나 혼자 해 냈던 것이예요.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자랑스럽네요. 1년차 동료들도 말은 안 했지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들이 제 환자 차트를 들여다 보더라고요. 아침 회진 전에 과장 선생에게 증례 보고를 할 때도 내가 좀 뜸떠 있었던 모양이에요. 과장 선생도 미소를 띠며 들어주셨는데, 그 논문 얘기를 들으시고는 무엇(what)을 어떻게(how) 해야 할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why)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부끄러워 지더라고요. 그 논문에 대해 언급을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예요. 하지만 좋은 논문은 많은

사람이 나눠보는 것이 좋겠다는 제 의도와는 달리 What과 How만 알고 Why에 소홀했는지도 모를 저를 꾸짖는듯한 과장님의 은근한 미소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더군요. 아마 다른 동료들은 눈치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Why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되었답니다. 되돌아 보건데 MRH에서 1년차 시절의 배움으로 40년의 소아과 의사 여정을 보람 있게, 대과 없이 마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답니다.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던 MRH가 20여 년 전에 완전히 문을 닫았기에 더욱 아쉽게 느껴지네요. 흑인촌에 너무나 가까이 있었기에 누적되는 적자 때문이었겠지요. 없어지기 전에 사진이나 한 장 찍어둘까 했는데, 차일피일하다가 어느 날 가 봤더니 이미 허허벌판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허무했지만 그렇게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많은 꿈을 품을 수 있었던 MRH였기에 지금도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고, 세월도 빨리 흘러 한 달 후면 86세가 되는군요. 응급실에서 걸려오는 기관지천식 환자에게 아드레날린(adrenaline)을 오더하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들을 수 있었던 그 요란한 숨소리가 쿠스말 호흡이었던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하면서 30분 내지 한 시간을 허비했던 저였기에, 그 수치심에 이 글을 쓰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는데, 이 나이에 숨길 것이 뭐 있겠어요. 거의 한 시간 동안의 오진이 지금도 부끄럽지만 진단 후에 그 심한 대사성 산증을 정말로 하나의 오차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었음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자랑하고 싶어 지곤 한답니다. 시험관에 가득 찼던 그 혈액, 거품으로 범벅된 수박색의 피가 지금도 눈앞에 아물거려네요. 이 신기한 경험을 내 가슴속에만 간직하고 떠나기에 너무나 아쉬워서 이 글을 썼답니다. - 다음 호에 계속

2026 Dr. Sae Joun Park Memorial Primary Care Fund Community Health Project Grant Program

- Purpose
 - To honor the memory of Dr. Sae Joun Park, a 1964 gradua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who dedicated his career to primary care and continued to care for his patients with unwavering dedication and compass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until the end of his life.
 - The purpose of this grant is to support projects that promote primary care and related areas. Eligible projects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community health, preventive care, chronic disease management, patient education, healthcare access, quality improvement activities, and other initiatives that advance primary care.
- Eligibility
 - The Principal Investigator must be one of the following:
 - A member of SNUCMAA, NA; or
 - An Affiliated Member of SNUCMAA, NA who resides in North America, holds an MD or equivalent degree, and has a parent who is a member of SNUCMAA.
 - Applicants from any medical specialty may apply.
 - The proposed project must align with the purpose of this grant as described in Section 1.b.
- Award Information
 - One or more awardees may be selected, depending on the quality of applications and funding availability.
 - Applicants may request up to \$12,500.
 - Applicants may also submit proposals requesting a smaller amount, depending on the scope and needs of the proposed project. For example, proposals requesting \$5,000 or other smaller amounts will also be considered.
 - The final award amount may be adjusted based on the proposal, budget justification, and available funds.
 - The Green Project Committee may request modifications to the proposed project plan, timeline, or budget before final approval of the award.
 - The project period is expected to be one year, beginning in January 2027. Extensions may be considered depending on the nature and progress of the project, subject to review and approval by the Green Project Committee.
 - Award timelines, by 11:59 PM ET:
 - Full application due: October 31, 2026
 - Review period: November 2026
 - Awardee selection and notification: December 2026
 - Award start date: January 1, 2027
 - Progress Report due: June 30, 2027
 - Award completion: December 31, 2027
 - Final Report due: June 30, 2028
 - Selection criteria will include the following:
 - Relevance to primary care and the mission of the Dr. Sae Joun Park Memorial Primary Care Fund
 - Significance of the community need addressed by the project
 - Potential impact on the target population
 - Feasibility of the proposed project plan
 - Appropriateness of the budget

- Potential for sustainability or future growth
- Qualifications of the applicant and project team
- Use of Funds
 - Funds may be used for expenses directly attributable to the proposed project, which ma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project supplies, educational materials, community outreach expenses, speaker honoraria, data collection or evaluation costs, online or in-person project-related activities, and other expenses necessary to carry out the approved project.
 - Funds may not be used for indirect costs, general operating expenses unrelated to the project, personal expenses, lobbying or political activities, or expense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approved project.
- Awardee Requirements
 - The awardee must carry out the project as described in the approved application.
 - The awardee must submit a Progress Report by June 30, 2027. The Progress Report should be approximately 2 pages in length and should briefly describe the progress of the project, activities completed to date, preliminary outcomes, any challenges encountered, a summary of funds spent to date and the planned use of remaining funds, and the plan for the remainder of the project period.
 - The awardee must submit a Final Report by June 30, 2028. The Final Report should include a project summary, implementation details, description of activities completed, description of the population served, outcomes and impact, challenges and lessons learned, and a budget report describing how the funds were used.
 - The awardee must present the progress and/or outcomes of the project at a SNUCMAA, NA convention upon request.
 - After award selection, the awardee may be asked to provide a brief project summary for publication in Sigyetap, the official SNUCMAA newsletter, and on the SNUCMAA website.
- Full Application Submission Guidelines
 - Required documents:
 - Full Application
 - Maximum of 6 pages for the main application narrative, excluding Bibliography & References Cited
 - Must follow the NIH Format Attachments guidelines: <https://grants.nih.gov/grants-process/write-application/how-to-apply-application-guide/format-attachments>
 - The application should include:

● Project title	● Project title
● Project summary	● Background and community need
● Project goals and objectives	● Target population
● Project plan and methods	● Expected outcomes and impact
● Evaluation plan	● Timeline
● Relevance to primary care	● Bibliography & References Cited
 - CVs of All Participants
 - CVs must be submitted for the Principal Investigator and all project participants.
 - Budget and Budget Justification
 - Applicants must provide an itemized budget and justification for each requested expense.
 - The total requested amount may not exceed \$12,500.
 - Application materials should be submitted by email to snucmaa@yahoo.com by October 31, 2026, 11:59 PM ET.



윤순호 (05) 동문 영상의학과, Colorado

1. 미국에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저는 모교 병원에서 10년간 교수로 봉직하다가 작년 여름에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중고등학생인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민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족 이민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학술적으로 교류가 있던 콜로라도의 National Jewish Health (NJH) 영상의학과 Seth Kligerman 과장님께 도미 의사를 상의드렸고, 감사하게도 함께 일해보자는 권유를 해주셔서 미국행을 결정하고 작년 여름에 콜로라도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평소 논문과 학회를 통해 존경해오던 폐 영상 분야의 대가들, Dr. Jeffrey Galvin, Dr. David Lynch, Dr. Seth Kligerman 선생님들이 계신 곳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라 매우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2. 미국 직장을 찾는 준비 과정은 어떠하였나요?

미국에 오기로 마음을 정한 뒤, 우선 미국 흉부 영상의학회(Society of Thoracic Radiology) 홈페이지의 구인란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대학병원과 전문 병원에서 흉부 영상의학과 교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 NJH와 UCSF에 지원서를 내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인터뷰를 준비할 때는 미국식의 직장 면접 경험이 전혀 없어서 많이 긴장했습니다. 학술적인 지식이나 세부 전공 역량을 매우 까다롭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인터뷰를 해보니 단순한 지식 평가보다는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동료인가’를 보는 과정이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 점을 깨달은 뒤에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제 경험과 관심 분야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인터뷰 이후의 입사 서류 준비 및 자격 검증 절차(onboarding and credentialing)이었습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경력, 면허, 학위, 이전 근무 기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훨씬 더 자세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병원 담당자가 한국의 여러 기관에 직접 연락해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 다소 난감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무사히 잘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3. 병원 소개 해주세요.

National Jewish Health(NJH)는 콜로라도주 덴버에 위치한 호흡기·알레르기·면역 질환 분야의 전문 병원으로, 1899년 결핵 치료를 위한 자선 병원으로 시작한 기관입니다. 저 역시 한국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시절 결핵관리의로 일한 경험이 있어, 결핵은 제게 일종의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질환입니다. 그런 점에서 NJH의 역사와 정체성은 제게 더욱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만성 폐질환인 간질성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 확장증, 비결핵흉산균성 폐질환 등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진료와 연구를 해온 분야와 매우 잘 맞는 기관입니다. 현재는 희귀

폐질환과 난치성 호흡기 질환 분야에서 미국 전역의 환자들이 찾아오는 병원입니다. 모교 병원에서 10년 정도 일하면서 꽤 다양한 희귀 폐질환을 경험했다고 생각했지만, 이 곳에 와보니 여전히 새롭게 접하는 질환과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과 미국의 지역적 차이라기 보다는, 병원 자체가 매우 특수한 환자군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뛰어난 임상 의와 연구자들이 많아서 임상 진료와 연구가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인상적입니다. 영상의학이 단순히 진단에 머무르지 않고, 환자의 질병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연구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4. 하루 일과는 어떠한가요?

하시는 일/연구 소개해주세요.

저는 일주일에 사흘은 임상 업무를 보고, 이틀은 연구에 할애합니다. 임상 진료를 하는 날에는 주로 관독실에서 흉부 CT와 X-ray, 그리고 폐질환과 관련된 연하곤란 검사, 횡격막 검사, 식도 관련 검사 등을 관독하고, 다학제 회의(multi-disciplinary tumor board)에도 참석합니다.

연구일에는 원내 Imaging Lab을 담당 하시는 Stephen Humphries 박사님, David Lynch 선생님과 회의를 하고, 연구 프로젝트 관리, 논문 작성과 검토, 연구 제안서 작성, 공동 연구 관련 회의 등을 진행합니다. 연구는 주로 CT를 이용한 COPDGene cohort, 흉부 영상 인공지능, 폐질환 정량화, 비결핵흉산균성 폐질환과 기관지 확장증 영상 분석 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결핵흉산균성 폐질환의 CT 정량화를 주제로 저희 NJH에서 연수 중이신 모교 병원 호흡기내과 박낙원 교수님과 함께 서울의대-북미주 동창회 국제연구기금에 지원하였고, 감사하게도 선정되어 현재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 한국과 미국에서의 병원 생활을 비교한다면요?

한국 병원은 일하는 속도가 빠르고 효율적인 면이 강했다면, 미국 병원은 절차와 역할 분담이 비교적 명확한 느낌입니다. 회의 일정, 행정 절차, 환자 정보 보호 관련 사항이 체계적이지만, 처음에는 그만큼 여가의 업무 방식에 익숙해져야 할 것도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모교 병원에서는 관독실에서 일하는 중에도 틈틈이 연구에 관련된 일을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관독의 밀도와 집중도가 훨씬 높아 다른 일을 할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관독을 얼마나 정확하고 일관되게 하느냐에 대한 동료 평가와 신뢰의 비중이 한국에서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더불어 NJH의 환자군 특성상 모교 병원보다도 진단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하루 일과를 마칠 때의 피로도는 미국에서 더 큰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작은 좌중우돌은 관독문 작성입니다. 미국에서는 관독문에 기술하는 세부 내용이 훨씬 많고, 마이크에 대고 구술(dictation)을 할 때 시스템이 제 발음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관독문을 작성하고 수정하는 데에도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6. 사시는 동네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는 덴버 남쪽에 위치한 Highlands Ranch라는 신도시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며 가족들이 살기 좋은 동네이고, 학교와 공원, 운동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센터가 있어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시설이 좋아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가능하면 매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이 있는 덴버는 도시이면서도 산과 가까워 장쾌한 로키산맥의 능선을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겨울이 길지만, 어딜 가든 공간이 넉넉하고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햇빛이 많은 날씨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7. 가족들은 잘 적응하고 있나요?

아이들 교육 환경은 어떤가요?

가족들은 저보다 더 잘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막 각각 9학년과 7학년을 마쳤는데, 2021년 미국 연수 때 1년간 미국 생활을 해 본 경험 덕분인지 학교에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가 아이들에게는 좋은 적응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서울의 교육환경이 갈수록 지나치게 치열해진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미국 학교는 학생의 선택과 응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서울에서는 하나의 정해진 진로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압박이 있고, 그 진로에서 한 번 어긋나면 다시 따라갈 기회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진로가 다양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 기회가 다시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8. 학창 시절 이야기 나누어 볼까요.

학창 시절에는 비교적 성실한 학생에 속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늘 앞자리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는 모범생이었다기 보다는, 뒷자리에서 조금 느슨하게 수업을 들으며 지각하는 친구들과 눈인사를 나누던 학생이었습니다. 실습 때에도 압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기 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을 파악하고 순발력 있게 넘어가는 데 조금 더 능했던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해보면 의학 공부 자체도 중요했지만, 좋은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동아리는 음악반(의대 오케스트라, SNUMO)에서 첼로를 했고, 가톨릭 청년 성서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와이프 그리고 지금 박은경 편집위원님과 두 동아리에서 모두 운 좋게 함께 활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건동 의대 도서관은 지금은 매우 근사한 공간으로 리모델링되었지만, 제 추억 속에는 다소 낡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열람실은 언제나 배우고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습을 마치고 뒤늦게 도서관에 자리를 잡을 때면, 공부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해야겠다는 조급함이 뒤섞인 채 책을 펼치곤 했습니다. 돌아해보면 그 조차도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톨릭 성서모임 대표를 맡았을 때의 기억도 남아 있습니다. 여름 방학동안 전국의 청년들이 모여 성경 강의도 듣고, 찬양도 하고, 나눔도 하는 등 신앙을 다지는 성서모임 캠프가 열리는데, 매 캠프의 마지막 파견 미사때 동아리 지도교수님이신 병리학교실 서정욱 미카엘 교수님과 함께 찾아가서 캠프를 수료하는 동기들과 선배들을 축하해주곤 했습니다. 몇 시간이나 걸리는 먼 길을 교수님과 다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오갔던 기억을 떠올리면, 그 때는 교수님도 저희도 참 젊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Grand Teton 여행 중

9. 미국내에서 여행가고 싶은 곳?

혹은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미국에 와서 가장 만족하는 것 중 하나는 콜로라도의 자연입니다. 아직 골프를 치지는 않아서 멋진 골프 코스를 다니고 있지는 못하지만, 첫 겨울에 세계적인 스키장들을 여러 번 다녀왔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7월 초에는 가족들과 Yellowstone과 Grand Teton 국립공원을 다녀왔는데, 왜 이곳들이 미국을 대표하는 국립공원으로 손꼽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로우스톤의 동쪽 지역에서는 웅장한 캐니언과 폭포를 감상하고, 책과 영상으로만 접했던 야생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 마치 자연 속 사파리에 온 듯했습니다. 서쪽 지역에서는 형형색색의 수많은 간헐천과 온천을 둘러보며 지구의 활발한 지열 활동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엘로우스톤의 여러 숙소 가운데서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대형 통나무 호텔인 Old Faithful Inn에서의 하룻밤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Grand Teton 국립공원은 엘로우스톤과는 대조적으로, 높이 솟은 바위산과 맑은 호수들이 어우러진 장엄한 풍경으로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Jenny Lake 주변의 트레일은 산과 호수를 가까이에서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숨겨진 보석 같은 곳으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Ayres Natural Bridge Park에서

10. 앞으로의 소망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미국 연수나 수련을 생각하는 후배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니어에서 중견으로 옮겨가는 시기에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얻고, 좋은 의사이자 좋은 연구자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한국 의사와 미국 의사의 차이가 개인의 자질보다는 주변 환경, 자원,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도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언어적인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서울의대 선배, 동료들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지내고자 합니다. 또한 제 경험이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영상의학과 후배들로부터 보다 나은 근무 환경과 보상,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이유로 도미에 대해 상담 요청을 받는 일이 꽤 있습니다. 저는 후배들의 도전을 환영하고 응원하면서도, 늘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고 말해주곤 합니다. 어쩌면 어디에서 일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후배들을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반갑게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귀한 시간 내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피워내는 우리 동문들의 향기에 감탄합니다.



보랏빛 선율과 가시 돋친 반전

자카란다는 5월, 실크 플로스는 여름에 피는 꽃

이 전 일(68, 남가주)

미국 중서부의 평원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은 내게 계절의 정직함과 인내를 가르쳐 주었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과 지평선, 겨울이면 세상을 집어삼킬 듯 덮어버리는 무채색의 눈은 그 자체로 평화로웠지만, 때로는 시각적 허기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란 나무들은 강인하고 소박했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생명체들에게 화려한 꽃 치장은 어찌면 허식이었을지도 모른다.

단조로운 풍경 속에 홀로 서 있던 햇빛은 나무들을 보며, 나는 마음 한구석에 늘 이국적인 생명력에 대한 동경을 품고 살았다. 오하이오의 겨울이 인내와 침묵의 계절이었다면, 이곳 남가주로 터전을 옮긴 후 맞이하는 봄과 여름은 참아왔던 생명력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환희의 서곡과 같다. 추위를 피해 옮겨온 이 따뜻한 땅에서, 나는 이 나무들을 통해 비로소 ‘색(色)의 해방’을 맞본다.

자카란다(Jacaranda mimosifolia)를 처음 마주한 것은 포르투갈 리스본의 어느 봄날이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유명한 광장을 살짝 벗어나, 약간 뒤로 들어간 곳에 있는 비교적 한적한 도로를 걷고 있었다. 그때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꿈속의 한 장면 같았다. 하늘이 통째로 내려앉은 듯한 보랏빛 꽃무리가 가로수로 줄지어 서 있었던 것이다. 나는 흠린 듯이 발걸음을 멈추고 그 꽃들을 감상했다. 자잘한 보라색 꽃들이 나팔처럼 층층이 매달려 미풍에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을 타고 전해지는 그 은은하고 약한 향기는 코끝을 간지럽히며 여행자의 고단함을 씻어주었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꽃나무가 가로수라니!” 감탄이 절로 터져 나왔다.

수목화를 그리는 예술가의 시선으로 볼 때, 자카란다는 만개는 마치 한지 위에 연한 보랏빛 먹물이 번져나가는 발묵(撥墨)의 절정처럼 보였다. 역지로 그려 넣은 색이 아니라, 자연이라는 붓이 스스로 길을 찾아 번져나간 듯한 자연스러움이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모습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처럼 경쾌하고 우아한 선율을 허공에 그려내고 있었다. 비록 꽃잎이 떨어져 땅을 끈적하게 적시는 ‘아름다움의 이면’이 있을지언정, 그래서 정원수로서는 그리 환영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을지언정, 그 순간 리스본의 골목은 내게 지울 수 없는 보랏빛 낙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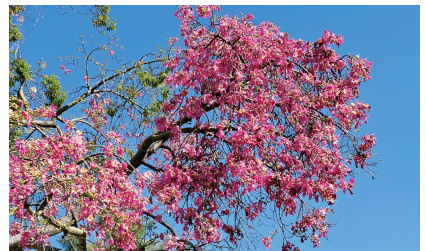
리스본은 나에게 단순히 아름다운 도시 이상의 강렬하고도 서글픈 인상을 남겼다. 이 이베리아반도 끝자락의 작은 왕국은 한때 브라질이라는 거대한 식민지를 호령하며, 그곳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금과 은을 물 쓰듯 낭비했던 역사가 있다. 전국의 교회 안을 온통 황금으로 도배하다시피 했던 그 무절제한 소비의 끝은 참혹했다. 결국 20세기 초, 국가는 재정 파탄에 이르렀고 더욱이 브라질이라는 거대한 식민지를 잃자 나라 전체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이 국가적 위기의 틈을 타 살라자르는 희대의 정치꾼이 등장했다. 그는 거대한 악마 같은 폭군이었다. 그는 국민들이 무식해야 다루기 쉽다는 해괴한 논리로 학교수를 제한하여 우민화 정책을 펼쳤고, 도로, 교통, 병원, 상하수도 같은 필수 사회 기반 시설의 설치마저 제한했다.

오로지 십여 가문만이 나라의 부를 독점하게 만들어 자신의 지배력이 공고히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40여 년간 이어진 그의 독재는 포르투갈의 시계를 멈추게 했다. 포르투갈에서 느낀 또 하나의 강렬한 인상은 이 살라자르 덕택에 4,50대 이상의 중년층에게는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학교에 다녀야 했던 시대에는 독재자에 의해 외국어 교육이라는 것이 철저히 제한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10대에서 30대 젊은 층과는 영어로 대화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았으니, 이 세대 간의 단절 또한 살라자르가 남긴 슬픈 유산이다.

살라자르가 죽고 나서야 포르투갈은 비로소 문을 열었고, 유럽연합(EU)의 재정 원조를 받아 상하수도, 학교, 도로 등의 인프라를 개선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포르투갈의 고속도로와 지방 도로들이 비교적 새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이 나라의 근대화가 늦었음을 방증한다. 유럽에 있다고 모두가 선진국은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며, 우리가 그들을 무작정 부러워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었다.

오죽하였으면 그가 심장병으로 집무실 책상 앞에서 사망하였음에도 그의 줄게들은 그가 호령할 것이 두려워 사흘 동안이나 그의 시신을 집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도록 방치하였다고 한다. 리스본의 낡은 골목마다 배어 있는 묘한 슬픔과 ‘파두(Fado)’의 애절한 가락은 아마도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민초들의 한(恨)일지도 모른다.



자카란다가 부드러운 선율이라면, 브라질 실크 플로스 나무(Ceiba speciosa)는 웅장하고 거친 서사시와 같다. 스페인 남부 코스타 델 솔의 뜨거운 햇살 아래서 처음 이 나무를 보았을 때, 나의 첫 마디는 경탄이 아닌 불평이었다.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런 괴물 같은 나무를 가로수로 심었던 말인가!”

퉁퉁하게 부어오른 듯한 밑동은 촘촘하고 날카로운 가시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외부의 침입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무장한 그 모습에 나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꼈다. 그러나 밑동만 보고 겁을 먹었던 나는 고개를 들어 그 꼭대기를 바라보는 순간, 나의 좁은 선입견을 무너뜨려야만 했다. 그 험악한 가시 줄기 끝에는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운 분홍과 흰색의 꽃들이 폭죽처럼 터져 있었기 때문이다.

의학을 공부하던 젊은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인체가 상처를 입으면 그 자리에 단단한 흉터(Scar)가 남듯, 실크 플로스의 가시 또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생존의 흔적이었을 것이다. 척박한 환경에서 제 몸을 지키기 위해 저토록 날카로운 무기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경이롭게 다가왔다. 말려의 교향곡이 주는 거대한 압도감과 그 뒤에 숨겨진 서정적인 아리아처럼, 이 나무는 강렬한 도입부를 지나 결국 가장 부드러운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이제 나의 일상은 이곳 남가주의 풍경 속에 깊이 뿌리내렸다. 6월이면 집 근처 도로에는 다시금 보랏빛 카펫으로 덮이고, 가을이면 실크 플로스의 분홍 꽃잎이 가시 돋친 줄기를 장식한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가시 돋친 실크 플로스 나무를 보고

병실에서의 동백

-2024년 7월 2일



서운석(68, VA)

1. 여기가 천국일까?

이틀만에 깨어나니 중환자실
이생의 소리 다시 들리네
그간 내 영혼은 허공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가
천근처럼 무거운 이 병상으로 돌아왔는가
짜각거리는 모니터의 불빛 눈부시고
주기적으로 혈압기가 팔을 조이네

밤새도록 병동복도에서는
컴퓨터를 들고 토론하는 의료인들
그래도 따뜻하게 미소 짓는
간호사만은 내 곁을 지켜준다

몸의 고무호스에서
흘러내리는 땀물을 버리고 기록한다
약물도 챙겨주고
부끄러운 부분도 씻어주고
새 옷도 입혀주는 천사의 손길
나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갓난아이

긴 긴 밤이 지나고 먼동이 트니
유리문으로 보이는 녹색 나뭇잎과 파란 하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세상 사람 소리 자동차 소리
바로 여기가 천국일까?

고맙다고 되풀이하는 내 말에
“선생님, 이것이 저의 직업입니다.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하는
천사의 손을 꼭 잡아본다

2. 부활 復活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에스겔
서형의 부활과 회복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돌아왔군요. 새 생명이 건강하고 풍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더 오래 사용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혹시, 연옥(Purgatorio)의 문이었나?
나는 백색의 기억 속에서 돌아와 다시 숨을 쉬며
전파로 오는 위로에 흠뻑 젖었다
호주의 유기농 목장의 목영우,
광화문 태극 부대 리더 전투기 조종사 이광석...
친절한 이웃과 보고 싶은 벗들이여
두 손 모아 고마움을 드린다

오존층에 구멍이 뚫린 연기가 자욱한 지구촌
호수는 바닥이 드러나고 나무도 목마른
지속되는 폭염 속이지만
에어컨이 들어오는 병실에서
혈관과 심장으로 스며든 탄산가스 독毒을 이기고
의료대란이 없는 안정된 나라에서
최상의 치료와 천사의 간호를 받고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랴!

하늘이 주신 환생還生의 선물에 고마워하며
눈물에 젖은 내 혼과 육신은
벽차오르는 감회와 용기로
새 걸음을 시작한다

무서워하며 뒷걸음질 치는 손주들의 손을 잡고 나무 밑에 섰다.

아이들에게 그 나무가 피워낸 예쁜 꽃을 보여주며,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인생의 작은 진리를 이야기해 주던 그 이후의 햇살을 기억하여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다. 겉모습의 거칠음 속에 감춰진 내면의 아름다움,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나무도 결국 그토록 부드러운 꽃을 피워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아이들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랐다.

해 질 녘, 클레어몬트 브루어리의 야외 테라스에 앉아 ‘Jacaranda IPA’ 한 잔을 앞에 둔다. 씹살한 흙의 풍미는 마치 실크 플로스의 가시 같고, 목을 타고 넘어가는 청량함은 자카란다는 향기 같다. 인

생도 실크 플로스 나무처럼 때로는 날카로운 가시를 견뎌야 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과정이 아닐까? 가시 돋친 줄기를 가졌든, 바닥을 어지럽히는 꽃잎을 가졌든,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었다. “정신 나간 놈들”이라 욕했던 그 가로수들이 이제는 나의 노년을 지탱하는 가장 깊은 철학적 동반자가 되었다.

80년을 넘게 살아온 지금의 나에게 나무는 가장 깊은 철학적 동반자다. 가시 돋친 인생을 묵묵히 버텨내며 찬란한 꽃을 피워내는 법을, 나는 오늘도 집 앞의 가로수들에게서 배운다. 인생은 때로 아프고 거칠지라도, 충분히 아름다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자 이승만이 민주의원 의장직을 사퇴했다. 김규식 부 의장이 의장 대리로 민주 의원을 운영했다. 10월 4일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은 한민당의 영수 제안과 여운형의 조선인 민공화국 주석 제안을 거절하고 10월 23일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했다. 이승만은 임시정부 인사들을 이 조직에 참여시키고 임정을 해산하려고 계획했다. 이승만 주도의 건국 기관이었다. 1946년 2월 8일 이승만 계열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김구 계열의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가 신탁통치 반대 운동이라는 기치 아래 대한독립촉성국민회(국민회)로 통합했다. 이승만이 총재, 김구가 부총재로 추대되었다. 독립촉성중앙협의회의 중앙조직을 끝내고 전국적인 지부 조직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국민회가 정당은 아니었지만 제헌국회의 다수당이 되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민주의원들과 미군정 당국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3월 20일부터 열리는 미소공동위원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 국무성의 양해를 얻어 민주 의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김구와 민주 의원, 임정 등 민족진영은 정권 인수를 위한 국민대표기관으로 인식하고 체제를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3월 18일 발표한 임시 정책 대강 27개조는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을 토대로 한 건국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서, 임시정부의 법통이 강력한 명분이 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1946년 5월 6일,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소련과 미국이 과도정부 수립에 참여할 정당과 단체의 자격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946년 2월 8일 북한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토지개혁과 산업시설 국유화를 시작했다. 1946년 4월 중국에서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1946년 6월 3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가진 유세에서 남한 단정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남한에 우선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이 정부 주도의 통일 기관을 설치하여 북의 소련을 몰아내고 통일을 이루자는 주장이었다. 6월 10일 정동 교회에서 대한국민촉성국민회 전국 대회가 열렸다. 이틀째인 6월 11일에 이승만은 김구와 함께 참석했다. 이승만은 “소련 사람을 내보내고 공산당을 이 땅에 발 못 붙이게 하자! “최고의 명령을 내리는 기구를 조직할 터이니, 이 명령에 복종함을 맹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답하여 김구는 “우리는 죽음으로써 이승만 박사께 복종하기를 맹세합시다”라고 외쳤다.

1946년 6월 12일 이승만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총재에 취임하였다. 이승만은 이날 ‘가까운 시일 내에 민족통일사령부를 중앙에 설치하고 국민운동의 최고 영도로서 독립 전취 운동을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6월 29일 새로운 민족통일기관 설치 구상과 단독정부 수립 준비 및 지지기반 확보를 위하여 민족통일총본부를 결성하였다.

온 기 철(71, 남가주)

총재는 이승만, 부총재는 김구였다. 1946년 7월 이승만은 상하이 임시정부를 계승한 형태로든지, 선출된 실행위원회로든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촉구했다.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한국 사람으로 구성된 임시정부를 수립하려는 미군정과 미국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는 이 정부는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의 과도정부이며 신정부는 외세가 아닌 우리 손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하고 남한 정부가 주도하여 북의 소련을 축출하고 통일을 한다는 이승만의 주장에 김구도 일단은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1946년 7월 25일, 중도좌파 여운형과 중도우파 김규식이 좌우합작위원회를 구성하여 좌우합작운동을 시작하였다. 미군정은 극우와 극좌를 배제하고 중도세력을 망라하여 통일정부 수립을 꾀하는 동시에 박헌영 등 극좌 세력을 고립시켜 우익 주도의 정국을 유도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은 좌와 우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 좌우 합작은커녕 중도세력의 위축을 초래했다. 이듬해 여운형의 암살로 좌우합작운동은 막을 내렸다.

1946년 10월 대구 항쟁은 미군정으로 하여금 좌파를 포함한 정부는 좌파 정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게 했다. 그리고 단독정부 수립 쪽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

1946년 12월 2일,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유엔에 호소하기 위해서 동경을 거쳐 미국으로 출발했다. 김구는 김포공항으로 가서 이승만을 환송하였다. 김구는 일단 이승만의 도미 계획에 찬성했다. 그러나 이승만이 조속히 미국 측으로부터 이승만과 김구의 과도정부 수립에 대한 확약을 받지 못하면 국내에서 김구 자신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 김구는 또다시 임정을 중심으로 한 과도정부 수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1947년 1월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리려고 하자, 우익 진영은 김구의 주도로 1947년 1월 18일 전국 반탁학련 반탁궐기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반탁 데모를 계획했다. 경향신문에 이 사실이 보도되어 미군정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중장은 김구에게 경고를 내렸다. 이 소식을 국내에서 보낸 전보로 알게 된 이승만은 김구, 전국 반탁학련, 민주의원에게 과격 시위를 중단하라는 전보를 보냈다. 과격 시위는 이승만의 외교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전국학련 주도의 대규모 시위는 취소되었다. 1월 18일, 대신에 경성 천도교 강당에서 전국학련은 학생들 2천여 명이 모여 매국노 소탕 대회 및 탁치반대 투쟁사 발표 대회가 열렸다. 김구는 김성수와 함께 격려사를 하였다. 김구는 학생들에게 데모를 하지 말고 조용히 해산해 줄 것을 종용하였다.

이승만 주도의 독립촉성중앙회, 김구 주도의 반탁투쟁위원회가 김규식의 좌우합작위원회를 비난하였다.

1947년 2월 14일에서 2월 17일 김구는 비상국민회의를 소집하여 민족통일총본부, 비상국민회, 독립촉성국민회를 통합하여 국민의회를 결성하였다. 김구는 국민의회를 바탕으로 3.1전후로 임정 중심의 정부 수립을 계획했다. 그러나 김구의 정부 수립 계획은 누설되어 세상에 모두 알려지고 말았다. 일부 신문은 ‘아이들 장난’이라고 조롱했다. 이승만의 도미 외교 성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승만이 국내에 없는 동안 저지른 성급한 행동이었다.

이승만과 한민당은 ‘국제정세를 모르는 자살행위’라고 했다. 김구가 겉으로는 이승만을 존경하고 그의 정책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정국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었다. 이승만이 없는 동안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속셈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미군정은 김구, 이시영, 조완구, 유림, 조소앙 등을 호출했다.

3월 5일 김구는 임정 요인들을 데리고 미군정청으로 갔다. 미군정 측은 그들을 잡아넣겠다고 위협했다. 미군정의 압력에 못 이겨 중경 임정 세력의 미군정을 대신하는 두 번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계획은 무산되었다.

한편 이승만은 1947년 2월 7일 미국 국무부에 다음과 같은 6가지 제안을 했다. 1) 총선거에 의하여 남북통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남조선의 과도정부를 수립할 것. 2) 이 과도정부는 미소 양국 간의 교섭을 방해하는 바 없이 점령군과 기타 중요 문제에 관하여 미소 양국과 교섭할 것. 3) 조선의 경제 재건을 위하여 일본에 대한 조선의 배상 요구를 속히 고려할 것. 4) 평등한 지위에서 조선에 통상권을 행할 것. 5) 국제 환제도를 설치하고 통화를 안정시킬 것. 6) 미군을 미소 양군이 동시 철퇴할 때까지 주둔할 것. 그러나 미 국무성이 이승만의 의견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947년 4월 21일 이승만이 귀국했다. 김구는 김포공항으로 그를 마중 나갔다. 김구는 이승만에게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관한 연설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자칫 국민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김구의 말을 들어 단정에 관한 연설을 하지 않았다.

1947년 5월,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김구와 이승만은 반탁 투쟁으로 이에 저항하였다. 그러나 많은 정당과 사회단체들이 미소공동위원회에 참여하여 우리 민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와 장덕수가 이끄는 한민당은 ‘참여하여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미소공위에 참가할 것을 주장했다. 한민당은 6월 19일 74개 정당 사회단체로 구성된 ‘임시정부수립대책협의회’를 구성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따른 임시정부 구성에 대한 대책을 말한다. 김구와 이승만이 수립하려고 하는 임시정부 또는 과도정부는 미소와 상관없이 한국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정부를 의미한다. 김구와 중경 임정 세력의 당인 한국독립당에서도 미소공위 참석에 동의하는 혁신파와 민주파는 탈당하여 신한민족당과 민주한독당을 창당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 참여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김구와 이승만은 고립되었다. 그들은 미소공위 참석 청원서 마감날인 1947년 6월 23일, 전국 곳곳에서 반탁 시위가 열리도록 선동하였다. 이철승과 전국학련 주도로 전국 각지에서 반탁 궐기대회가 열렸다. 이승만과 김구는 시위대를 격려했다. 그러나 대규모 군중 동원에는 실패했다. 우익 신문들은 시위 군중이 10만이라고 보도했지만 3,4 천 명에 불과했다. 국민은 반탁운동보다는 좌우합작운동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1947년 7월 3일 조선일보가 24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탁 시위는 ‘독립의 길이다’ 651표, ‘독립의 길이 아니다’ 1,736표를 받았으며, 미소공위에서 제외될 사회단체로 한민당 1,227표, 한독당 922표, 독촉국민회 309표, 남로당 174표 등이 나왔다.

1947년 3월 12일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냉전시대의 시작이었다. 소련이 차지하고 있는 38선 이북과 남한이 점령하고 있는 이남이 한 나라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미국은 좌우 합작운동을 포기하고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어떤 합의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1947년 9월 17일 미군정은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미소공위를 통해서 한반도에 통일된 민주국가를 건설할 계획을 포기한다는 선언이었다. 더구나 좌우합작운동의 중도 좌파

A Poem

Hahn Joong Lee(65, CA)

To me,
a poem is a conversation with
something enduring,
something yearning to endure—
hopefully, prayerfully,
something eternal.

To me,
a poem is a longing to speak
to Someone beyond this universe,
to Someone who watches over this world
from a dimension beyond our reach,
yet who still converses with each of us,
every moment of every day and night,
in the quiet depths of the heart,
with a gentle, still voice.

To me,
a poem is a reminder that
our lives are incomplete
until we discover
what our Creator intended us to know—
what some call Truth.
It has been said
that truth is beauty,
and beauty is love.

To me,
a poem is an irresistible instinct
to remain oriented and whole,
to stay close to Him
while journeying through
this troubled world of humankind.

의 대표자였던 여운형이 1947년 7월 19일 암살되면서 좌우 합작운동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김구는 한국독립당으로 우익진영을 통합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미소공동위원회 참여에 이견이 생겨 난항을 겪었다. 안재홍의 조선국민당 계열, 권동진의 신한민족당 계열이 미소공위 참여를 주장했다기 때문에 한독당에서 분리되었다. 김구는 한독당과 한민당의 합당을 강력히 추진했다. 한민당 당수 김성수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한민당이 한독당에 흡수될 것을 우려한 장덕수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로 인해서 김구는 장덕수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1947년 7월 10일 제1회 한국민족대표자 대회가 열렸다. 이승만과 김구가 공동 영수로 추대되었다. 김구의 한독당 선전부는 “자율적 법통 임시정부 수립 대업 성취를 원조 승낙하기 바란다”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1947년 8월 12일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었다.

1947년 9월 5일 이승만은 김구가 주도한 국민의회의 주석으로 보선되었으나 9월 16일 주석 유임을 거절했다. 그리고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하며, 그 배경을 “내가 총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남북을 영영 나누자는 것이 아니오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서 국제상 발언권을 얻어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축성할 통로를 열자는 것이며 만일 이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지만은 아무 다른 방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이 유일한 방식이니 전민족이 다 합심해서 이것을 촉진하는 것이 가 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1947년 9월 17일 미 국무부 장관 조지 마셜은 한국 문제를 〈다음면에 계속〉



나 두 섭 (73, 남가주)

우리 말로는 ‘달나라에 사는 여인’으로 되어 있다. 밀레나 아구스의 이태리 베스트셀러 소설 ‘Mal de Pierres’를 영화로 만든 것이다. 이 영화는 프랑스 영화다. 영어가 아니라서 좀 친숙해지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어려서 한국말만 하다가 미국 와서 영어회화를 깨우치느라고 애썼다. 와보니 스페인 언어 쓰는 사람이 많아 그 언어를 배운 사람도 많았다. 프랑스 말은 전공을 한 사람들이나 거기서 산 사람들 외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프랑스어를 들으면 발음이 입 앞쪽에서 많이 나와 특히 여자가 하면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표현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몇몇 영화는 널리 알려져 있고 프랑스 여배우 중에 ‘소피 마르소’는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다.

From the Land of the Moon이라는 영화는 2016년 작품인데 미국에서 잘 알려진 작품은 아니다. 그래도 칸 영화제에 출품되어 작품상, 감독상, 여우 주연상을 받은 영화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은 Marion Cotillard로 미국 영화 A Good Year, Nine, Public Enemies에도 출연해서 다소 친숙한 배우이고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한다. 2007년 영화 La Vie en Rose에서는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

상하였다. 이 영화는 프랑스 남부 지방에서 시작한다. Gabrielle은 어릴 적에 학교 선생님에게 진한 짝사랑 편지를 보냈는데 거부 당했고 그 후 행동이 좀 거칠어졌다. 스페인에서 Jose란 사람이 농사 수확 일꾼으로 그 지방에 왔는데 엄마가 가브리엘을 호세와 결혼 시켰다. 가브리엘은 엄마가 자기를 팔아넘겼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사랑 없는 정식 부부가 되었다. Gabrielle은 가끔 허리가 끊어지게 아팠는데 그 이유가 신장 결석으로 진단되어 치료 차 스위스 온천 요양원에 6주 예정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인도차이나 전쟁 참전 용사로 한쪽 다리 불구인 Andre를 만나게 되었는데 둘이는 서로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가브리엘은 어릴 적 피아노를 배웠는데 안드레도 피아노를 쳐서 이때에 나오는 차이콥스키의 사계(The Seasons) 6월 뱃노래는 이 영화에서 가끔 흘러나온다. 이 곡은 널리 알려진 곡은 아니지만 피아노를 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고 아주 잔잔하고 서정적인 느낌이 가는 곡이다. Andre의 주소는 리옹이었다. 호세가 면회 왔는데 가브리엘은 그를 냉대하였다. 거기서 호세와 안드레가 마주쳤는데 안드레는 호세에게 자기는 심히 아파서 앞으로 오는 내세에서 가브리엘과 살 것이라고 하였다. 안드레는 건강이 악화되어 리옹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말 없이 떠난 안드레를 태운 앰بول스를 쫓아가다 가브리엘은 쓰러지고 만다. 얼마 후 가브리엘은 다시 돌아온 안드레를 만나서 둘이는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였고 같이 의자에 앉아 사진도 찍었다. 그러다가 가브리엘은 완치되었고 남편이 다음날 데리러 온다는 말을 듣고 절망에 빠져 안드레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했지만 자기

는 군대로 가야 해서 일단 헤어지고 편지로 연락하자고 하였다. 요양원을 퇴원한 가브리엘은 남편 호세 곁으로 가 프랑스 조용한 바닷가 새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호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안드레와 사랑했고 아기도 임신했고 연락 오면 떠난다고 하였다. 트렁크도 꾸러 놓았다. 아무리 편지를 보내도 답장은 오지 않았고 어느날 모든 편지가 반송되어 왔다. 가브리엘은 상심해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남편의 만류로 포기하고 호세와 살기로 하였다. 아들도 출산하고 세 식구는 평온한 삶을 살았다. 그 후 십여 년이 지나 아들이 피아노 콩쿠르로 리옹으로 가게 되었는데 셋이서 가는 도중 가브리엘은 안드레의 리옹 주소를 발견하고 둘이 먼저 보내고 내려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 집에서는 안드레의 부하 장교가 살고 있었고 안드레의 소식을 물으니 그는 리옹에 이송된 날 바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사진: 나두섭(73) - 항구와 범선

〈전면에서 계속〉 유엔에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유엔 한국 위원회 감시하의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실시하고, 정부가 수립되면 미소 양군을 철수하고 그 정부의 권능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안을 제2차 유엔총회에 상정하였다.

1947년 11월, 김구가 이승만의 노선에 협조하는 대신, 이승만은 김구의 국민의회 중심으로 우익이 단결하는 데 동의했다. 1947년 11월 24일 김구는 남한 단독 선거가 국토 양분의 비극을 가져올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승만이 주장하는 남한 선거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었다. 그러나 일주일 후 12월 30일 이화장에서 이승만과 회동을 마치고 나와서 ‘자신과 이승만 사이에서 근본적인 의견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1주일 전의 주장을 반복하였다. 12월 1일, 김구는 ‘소련의 방해가 제거되기까지 북한의 의석을 남겨놓고 선거를 하는 조건이라면, 이승만 박사의 단독정부론과 내 의견은 같은 것이다’라고 반복된 주장을 확인했다.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의 제거로 이승만에게 남은 경쟁자는 김구 밖에 없었다.



1947년 12월 2일, 장덕수가 제기동 자택에서 암살 당했다. 12월 4일 범인 박광옥과 배희범이 체포되었다. 용의자 6명은 1947년 8월 창단된 대한혁명단을 조직했다. 이들은 임정을 절대 지지하는 대한학생총연맹의 간부 또는 맹렬 단원들이었다. 1947년 6월에 발족했는데 김구를 총재로, 조소앙과 엄항섭을 명예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박광옥은 종로경찰서 경사로 근무하는 경찰관이었고, 배희범은 초등학교 교사로 모두 한독당 당원이었다. 수사를 지휘했던 장택상은 김구를 체

포하고 경교장에 대한 수색영장을 내려고 하였다. 김구 계열의 단체가 연루되어 있는 것이 확실했고 배후로 김구가 의심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지 중장이 이를 중지시켰다.

12월 4일 김구는 “국민의회와 민대(이승만 주도의 민족대표자회의)와의 완전 합작은 민족 단결 공작에 기초를 주는 것이며 심히 경하할 일이다. 나와 이승만 박사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실현하자는 목적에 완전한 합의를 보았다”라고 하였다. 12월 12일 수도 경찰청장 장택상은 국민의회 측의 간부 몇 사람이 장덕수 피살 사건에 관련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김구의 국민의회와 이승만 주도의 민대 합동회의에 대한 집회 금지 조치를 내렸다. 12월 14일 김구는 이승만을 방문하여 장덕수 피살 사건에 한독당 당원들이 구속된 문제에 관해서 요담했다. 12월 20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맞이할 한국민족대표단의 공동 고문으로 김구와 이승만이 추대되었다.

장덕수의 피살 사건은 김구와 한민당, 김구와 이승만의 관계를 악화시켰다.

김구는 이승만에게 자신이 법정에서 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승만은 하지에게 “만약 김구를 체포하면 거족적으로 군정에 대항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장덕수 암살의 배후가 김구 세력임이 드러나서 한민당과 김구의 관계는 악화되어 있었다. 이승만이 김구를 두둔하고 나오자 한민당은 이를 좋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12월 21일 이승만의 민대가 김구 주도의 국민의회를 무시하고 한민당과 연대하여 독자적으로 한국문제 유엔대표단을 맞이할 한국민족대표단을 구성하였다. 말은 이승만이 김구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궁지에 몰린 김구를 고립시키려는 수작이었다. 김구는 대노했다. 12월 22일, 김구는 단독정부 절대 반대와 한국민족대표단의 해산을 주장했다. 원래 이승만과 김구의 연대에 비판적이었던 한민당에게는 호재였다. 김구의 항의로 이승만 주도의 한국민족대표자회의와 한국민족대표단 구성을 위한 합동 작업이 재개되었지만 한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948년 1월 8일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한국에 도착했다. 1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 임시위원회 회의에 이승만과 김구가 참석했다. 이승만은 단장 크리스나 매논이 남북한 동시 총선거를 요구하는 발언을 시작하자 즉각 대회를 떠났다. 이 무렵부터 김구와 이승만의 노선이 분명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고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추진이었다. 1948년 1월 16일, 언론은 그때의 상황을 “... (김구)국민의회 측에서 임정 범동을 고집하고 (이승만의)민대 측에서 해계모니를 장악하려 함이 부동한 쌍방의 근본 주장...”이라는 요지의 보도가 나왔다. 한편 한민당은 1948년 1월 21일 임정 수립대책위원회(미소공동위원회에서 거론되는 임정)를 한국독립정부수립대책협의회로 개칭하여 자신들의 당론이었던 임정 봉대론을 철회하고 이승만의 단정 노선에 합류하였다. 1948년 1월 23일 유엔 소련 대표 안드레이 그로미코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 입국을 거부했다. 김구는 1월 28일 유엔위원단에게 ‘미소 양군이 철수하여 군정의 간섭 없이 유엔 치안하에 자유스러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남북 지도자 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송진우, 여운형, 장덕수가 사라진 마당에 남은 대권 경쟁자는 김구와 이승만이 었다. 장덕수 피살 사건의 경위는 김구 배후가 크게 의심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승만에게는 김구를 제거하거나 최소한 그의 영향력을 크게 손상시킬 수 있는 더 없는 기회였다. 이승만은 경찰이라는 커다란 무기가 있었다. 장택상은 이승만을 위해서 경찰력을 움직였다. 장택상의 수사는 김구를 배후로 지목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이승만은 뒷짐지고 기다리면 만사 해결이었다. 재판과정에서 장덕수 피살 사건의 배후로 밝혀진 김석황은 김구 세력의 행동 대장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장택상 수사팀은 그를 경기도 광주에서 체포했다. 그런데 그의 소재를 추적하는 경찰에게 알

Andre와의 사랑, 임신, 모든 것은 그녀의 환상이었다. 트렁크를 열어 사진을 보니 자기 혼자만 찍혀 있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현실을 받아들였다. Jose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Gabrielle이 말했다. “If you want I’ll leave.” 그리고 물었다. “Why didn’t you ever tell me?” Jose가 대답했다. “I wanted you to live.” 차이코프스키의 사계 The Seasons. June: Barcarolle이 흘러 나오며 이 영화는 끝난다. 영화 대사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마 ‘Love Story’에 나오는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다.”일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From the Land of the Moon’에서 나오는 내가 조금 의역한 대사 “나는 네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가 더 마음을 울린다.



려준 사람은 그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체포 당시에 그의 주머니에서 아직 부치지 않은 편지가 한 장 나왔다. 김석황은 이 편지를 장택상에게 보내려고 했다고 한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께서 대권을 잡으실 때까지 소생은 유리개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원 선생님은 기어코 대권을 잡으십시오. 대권은 반드시 선생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선생님은 천명을 받으셨으나 소생은 잡힐 리가 만무합니다. 이 박사와 한민당 찬역배가 음모를 하오니 선생님은 특별히 신병을 조심하십시오. 대권이 이 박사에게 가면 인민이 토탄에 빠지고 애국자의 살상이 많이 날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 대권을 추호도 사양치 마시고 기어코 대권을 잡으십시오. 운운” (페리스코프; 해방일기 1948.1.16/김구가 과연 장덕수 암살의 배후?) 이 편지는 김석황이 김구에게 보내는 편지로 알려져 있다. 장택상은 수사 중에 이 편지의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 김석황의 체포 과정, 편지의 내용, 김구가 아니고 장택상에게 보내려 했다는 김석황의 주장 등은 그 진실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김석황의 체포와 그 편지는 김구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미군정이 김구를 미국이 추구하는 한반도 정책에 반대하는 과격한 민족주의자로 낙인 찍기에 충분했다. 장덕수는 꺾끄러운 이승만과 김구 외에 유일한 미군정이 믿을 만한 지도자였다. 미군정은 남한에 미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세워놓고 떠나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관료, 자산가들을 보호해야 했다. 이들 중에는 많은 친일파들이 있었다. 김구는 친일파 청산을 주장했다. 따라서 미군정이 떠난 후의 남한을 김구에게 맡길 수는 없었다. 미군정은 할 수없이 장덕수 암살 후 이승만을 선택해야 했다. 1948년 1월 22일 자 버치보고서에는 경기도 경찰 청장 장택상이 김구가 수신인으로 되어 있는 김석황의 편지를 ‘이승만을 위해서’ 언론에 공개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박태균의 버치 보고서; 10. 김구의 권위를 떨어뜨려라)

서울대학교 23년

노영일(68, 시카고)

나는 서울대학교 담장 안에서만 23년 교육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6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3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3년, 서울대학교 문리과 대학 의예과 2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과정 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과정 3년, 이렇게 도합 23년 교육을 받고, 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서 서울대학교 교문을 나섰다. 또 서울대학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증을 받았다. 나는 모든 교육을 전적으로 서울대학에서 받은 셈이다.

서울대학교에 대한 애착 내지는 충성심이라고 할까, 어찌 생각하면 주변머리 없이 한곳에만 머물러 있어야 안심되는 안일주의자이기 때문인가.

내가 한 살 때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내가 어머니 태속에 있을 때는 2차 대전 말기 일정시대였다. 그 당시 는 매우 어려웠던 시기로 먹을 것조차 없 었던 때였다. 어머니는 생전에 나만 보시 면 어머니가 나를 배었을 때 갯묵만 먹고 연명하여 내가 근력이 없다고 늘 말씀하 셴다. 내가 국민학교에 입학하자마자 6.25 동란이 일어났다. 6세의 어린나이에 만삭이신 어머니 손을 잡고 남쪽으로 남 쪽으로 정처 없이 걸어서 피난을 갔다. 피난 대열에는 약간의 패잔병들도 섞여 있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단발 전투기들 이 날라와 피난민 대열에 기총소사를 퍼 붓기도 하였다. 비행기 소리만 나면 길에 서 내려와 논바닥에 납작 엎드리곤 했다.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면 이곳저곳에 사 람들이 죽은 시체를 둘러싸고 웅성거렸 다. 잘 곳이 없어 웅기전 가마터에서 자 다가 깨진 독이 굴러 내려와 크게 다칠뻔 하기도 하였다. 빈집에 들어가 잠을 자기 도 하였는데 그 때 빈대가 어찌나 극성이 었던지 벽에 기어가는 빈대를 소름으로 으깨면 피가 쭉 나와 벽지에 마치 별뿔별 같은 자국을 남기곤 했다. 그 핏자국이 벽지를 거의 채워 지금 생각하면 무슨 추 상화 같아 보였다. 어쩌다 주먹밥 하나를 얻으련 어머니는 우리부터 먹이곤 하셴 다. 부친은 서울에 남아 계시다가 한강 다리 폭파 후 간신히 광나루에서 한강을 건너 걸어 내려오시다가 기적적으로 수 원에서 가족과 만났다. 그 후 기차 지붕 위에 매달려 부산까지 내려갔다. 지붕에 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어머니 손을 꼭 붙 잡고 가던 기억이 난다. 터널을 지나 갈 때는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납작 엎드 려야 했다. 터널을 지나고 나면 기차 연 기에 코가 새까매 지곤 했다. 그렇게 낮 선 땅 부산까지 내려 갔다. 얼마간 피난 민 수용소에서 지냈는데 지금 기억에 큰 벽돌집 창고 같은 데서 수십 세대가 비벼 대며 살았다. 그래도 아버님이 의사였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 작은방을 구하여 나 갈 수 있었고 식생활은 위협을 받지 않았 다.

전쟁 중에도 학교 교육은 그치지 않았 다. 부산 광복동 산기슭에 설치한 천막교 실에서 공부하였다. 서울이 수복되자 잠 시 서울에 올라왔다가 그 겨울 다시 1.4 후퇴로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 겨울은 유 난히 추웠다. 화물 열차에 콩나물시루같 이 뻥뻥이 실려 부산까지 내려갔다. 동대 신동에 작은 집을 마련하여 살았다. 아버 님은 살림집에 붙은 작은 사무실에서 환 자들을 치료하셨다. 피난 학교는 서대신 동 빈터에 임시 천막교실을 짓고 공부했 다. 거기에는 높은 짚단들이 쌓여 있었는 데 거기에 올라가 놀던 생각이 난다. 그 때 훗날 국회의원이 된 정대철이 어린이

학생회장으로 출마하여 뽑혔던 기억이 난다. 동대신동에서 서대신동 학교까지 걸어 다녔는데 도중에 뒷세를 부리는 그 곳 토박이 아이들한테 괜히 얻어맞기도 했다. “서울내기 다마내기 맛 좋은 고래 고기” 하며 놀려 댔다. 광복동 시장에는 불이 자주 나곤 했는데 우리가 살던 동대 신동에서 보면 남쪽 밤하늘이 붉게 타오 르는듯했다. 아침에 구경 가면 타버린 노 점들과 타다 만 땅콩들이 산더미같이 쌓 여 있곤 했다. 차츰 그곳에 적응이 되어 친한 친구들도 생겼다. 나는 유창한 부산 사투리로 말하면 그곳 아이들은 이상하 게 서울말 흥내를 내며 대답하곤 했다. 다시 서울 수복이 되어 을지로 5가에 있 는 캠퍼스로 들어왔다. 본 건물은 사대 부고가 찾아하고 사대부국은 새 교사를 짓는 동안 강당에 칸을 막고 수업을 하였 다. 그러다가 캠퍼스 남쪽에 새 건물이 완공되자 그리로 이사했다.

그 당시 사대부중은 특차였고 사대부 국에서 성적이 상위 10등이면 사대부중 에 무시험으로 들어갔다. 나도 무시험으 로 중학교에 진학했다. 다른 아이들이 입 시 공부에 몰두할 때 우리 무시험 합격자 들은 신나게 땡땡이를 쳤다. 담임선생님 이 다른 아이들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우리 무시험 합격자들은 교실 맨 뒷자리 에 앉혔다. 우리는 뒷자리에 앉아 앞자리 에 앉은 아이들 뒤통수를 향해 고무줄총 으로 종이 탄환을 쏘며 장난을 치던 생각 이 난다.

중학교 때는 용두동에 있는 교사에서 공부했다. 그곳은 선농단이 있었던 자리 고 뒷문은 안암동으로 통했다. 그때 우리 집은 돈암동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덩바 위산을 넘어 안암동까지 걸어 다녔다. 간 혹 다른 길고 안암천을 따라 걸어가 정문 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이 길은 조금 멀 었다. 안암천 개천가에는 추어탕 가게들 이 많이 있었다. 추어탕 만드는 것을 구 경하기도 하였는데 끓는 물에 찬 두부를 넣고 미꾸라지들을 쏟아부어 넣으면 미 꾸라지들이 모두 두부안으로 뿔고 들어 간다. 이것을 썰어서 국물과 함께 밥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 때는 다시 을지로 5가 건물 로 들어와 돈암동에서 을지로 4가까지 전차를 타고 다녔다. 이 시절 4.19와 5.16 같은 큰 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4.19 때 거리에서는 총 맞아 죽은 시체를 트럭 위에 싣고 피로 물든 머리띠를 매고 소리 치며 거리를 질주하는 광경도 목격했다. 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만 집에 보내 주었다. 집까지 걸어가 며 어머니는 나를 자꾸만 길 바깥쪽으로 밀어내셨다. 왜 그러냐고 하니 어머니는 혹시 총알이 날라 오더라도 어머니가 먼 저 맞아 방패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셨다.

대학입시는 내가 처음 치른 입학시험 이었다. 군사혁명 직후라 필기 시험뿐아 니라 체력장 점수까지 합하여 가위 문무 를 겸한 대학입시였다. 국가시험으로 전 국의 석차가 발표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냈다. 아버 지의 뒤를 따라 의사가 되려고 서울 문리 대 의예과에 진학했다. 서울대학 뺨지를 달고 것처럼 자랑스럽고 기쁠 수가 없었 다. 의예과는 청량리 캠퍼스에서 공부했 다. 의예과 시절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대학 생활을 즐기는 게 목적인 것 처럼 지냈다. 그때는 당구가 유행이였는 데 강의를 빼먹고 당구장에서 서성거리 곤 했다. 그러다가 놀랍게도 100명 중 10 명이 유급을 했다. 서양사, 동물학, 식물 학, 영어, 독일어, 등 교양과목에서 본보 기로 낙제를 시킨 것 같았다. 나는 미술 부에서 그림도 그리고 야구팀에서 운동 도 했다. 나는 무사히 의예과를 졸업하고 의과대학 본과로 진학했다.

의대 본과 진학 당시는 모두 어려운 공 부를 할 각오를 하고 사뭇 비장한 마음으 로 들어갔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야 했고 어려운 시험도 수시로 봤다. 그 당시는 유신독재 〈다음면에 계속〉



2026년 여름을 위한 세 편의 삽화와 詩

서 랑(69, 대뉴욕)



바다 이야기

telepathy 와이파이
더운 기운 넘나드는 공명음
이제야 내 응접실에 가득하네
먼 햇살 닿을까 말까
이끼 들끓는 저 바다 밑바닥
靑銅色 줄무늬 죽죽간 열대어 한 마리
8K 해상도 화면을 획 뛰쳐나온다네



넙치

지느러미 날갯짓
넙치는 짙은 深海가 그림다네
몸집이 사람만 한 바닷고기를 마주한다
여흠여흠 물결따라 갈 길 가는 너벅함
포커스가 뚜렷해야 돼
누군지 속삭이는
뉴저지 H Mart 생선 섹션



밝은 회색

하늘은 은박지
고개를 들면 얼른 사라지는 色感
나는 덜렁 구름에 올라
흰 수염 휘날리는 신선이라네
지구는 어디쯤 혼비백산 주행 중인지
smiley face 낯달 꼬부라진 눈초리
연거푸 내게 웃음 짓고 있다네

흰 모시와 지휘자 -- “어머니”

조중행 (69, 시카고)

얼마 전 어머니의 35번째 기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35년 - 여전히 ‘엄마’라는 단어가 더 편하지만, 이제는 그 크기를 짐작하며 ‘어머니’라 불러 봅니다.



숙명 여중 시절 어머니

1923년 어머니는 숙명여중을 다니던 열다섯 살의 어린 나이에 한일 병합 후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신 내 증조부와 집안 어른들의 결정으로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아버지에게 가마를 타고 시집오셨습니다. 작은 체구의 단아한 조그만 깨끗한 얼굴의 여인, 세상이 달랐다면 아마 배우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평생 쪽 진 머리에 비녀를 꽂고, 흰모시와 옥양목 두루마기, 전통 한복만을 고집했던 지극히 작고 고루한 양반댁 여인. 그 단정한 뒷모습은 지금 손주를 데리고 걷는 내 딸의 뒷모습 속에서 문득 되살아 나곤 합니다.

한문에 능하셨던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신 후 여러 제사 때 지방을 직접 쓰셨습니다. 내가 미국으로 건너온 뒤에도 항공엽서로 그 궁체의 한글 편지를 자주 보내셨고 지금도 잉크 향기 속에 배어 있던 그 절제와 정성은 내 서랍 속에서 숨 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경의전을 졸업(1930)한 소아과 의사로, 늘 일에 쫓기시던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그녀의 삶은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이었습니다. 여섯 남매의 교육, 결혼, 분가, 매달 찾아오는 4대 제

사, 13명 대가족의 살림, 선대로부터 내려온 선영의 관리까지, 집안의 모든 재정과 대소사는 그 작은 체구의 손에서 냉철하게 관장되었습니다.

이문열의 소설 속 ‘선택’이 그러했듯, 그녀는 전통적 의무를 수행하면서도 현대적 경영인의 권한을 누린 여인이었지요. 다시 태어나도 남자의 고단한 생애보다는 가정을 관장하는 여자의 삶이 낫다고 답답히 말하던, 자신의 선택을 긍정한 강한 의지 - 그 말은 어머니의 신념이자 생애의 이력서였고, 고난 속에서의 깨끗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여섯 남매 중 넷을 서울대학교에 보내고 의학, 물리학, 화학, 약학을 선택하도록 한 것은 이른 결혼으로 형제 중에 자신만 못 이룬 고등교육에 대한 갈망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가장 사색적인 기억은 70년대 미국 서부의 버클리 캠퍼스에서였지요. 가족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던 칠십년대 말 어느 날 UC 버클리 캠퍼스에서 건축학을 공부하던 장손녀와 교정을 산책하시던 어머니를 본 미국 학생들이 손녀에게 물었답니다.

“어느 나라의 프린세스냐고.”

흰모시 한복과 쪽 진 머리 하늘색 고무신, 그 모습은 낯선 땅 위의 한 동양의 프린세스였고 전쟁과 격동의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 내면서 바람이 휩쓸고 간 자리에서 끝내 집안을 지켜낸 한국판 ‘스칼렛 오히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1990년, 여든 살 생애의 위중한 그 순간, 마지막으로 정성껏 써 놓았던 한글 궁체의 반야심경, 덧없음 속에서도 진실을 구했던 그녀의 마지막 성찰이었을까?. 그렇게 심곡서원 옆 한양 조씨 댁 용인의 흙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이제 꿈속에서도 희미해진 어머니 모습은, 고단함 대신 한없이 깨끗한 흰모시 옷 같은, 빛나는 지휘자의 삶으로 나에게 기억됩니다.

정말이지, 돌이켜 보면 한 폭의 수묵화처럼 고요하고 멋진 생이었지요.

〈전면에서 계속〉 반대 시위가 한창인 때였다. 학생회장들은 잡혀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우리도 데모대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나는 급우들에게 떠밀려 의과대학 학생회장에 출마를 하였으나 다행히(?) 한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낙선을 하였다. 그 당시 한국이 월남전쟁에 참전하였다. 미술부에서 가까이 지내던 선배 한 분이 청룡부대에 소속되어 월남전에 파병되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경악했다. 군의관이 전사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했다. 대학을 졸업하고는 연건동 대학원에 가서 시험도 치고, 강의도 듣고, 논문도 썼다. 대학원 졸업과 함께 서울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병원 수련의 마지막 해에는 강원도 산골 무의촌에 파견되어 6개월간 공의로 일했다. 군사독재 시절 서슬이 퍼렇 때에 수련의들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올려 달라고 파업을 했다. 이것이 바로 수련의 파동이였다. 연일 일간 신문에 대서특필 되었다. 군사정권은 이런 움직임이 사회 전반에 확대될까 우려하여 단호하게 대처했다. 그 결과 3일 안에 무의촌에 나가 일을 시작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우리들은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내버

려두고 이불 하나 싸 들고 당장 들어 보지도 못한 낯선 시골 산골로 가야 했다. 당시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라 우리는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체험했다. 그 당시 는 그것이 공산국가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회의를 느꼈다. 그러나 몇십 년 지난 후에야 그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와 함께 나는 우리 민족의 꺼질줄 모르는 강렬한 교육열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대열에 올려 놓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코흘리개 때 서울대학 교정에 발을 들여놓은 후 박사 학위까지 받고 전문의가 되고서야 그 문을 나섰다. 그동안 6.25., 4.19., 5.16 등 우리 민족의 역사적 격변을 겪었다. 그리고 월남전이 한창이던 시절 군 복무 3년 의무를 채웠다. 우리 동기들은 여러 명 월남전에 파병되었다. 내가 소속되었던 부대로 월남 파병 계획에 들어 있었으나 파병 직전 월남전이 끝났다. 나는 제대 후 곧바로 미국으로 왔다. 나는 우리 민족 역사의 격동기에 젊음을 서울대학교 안에서 불태우고 모든 교육을 서울대학교 안에서만 받았다. 나는 이런 서울대학교와의 특별한 인연을 가장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의사: 아, 그렇군요, 그럼 의사한테가 보세요

포도 다이어트

20대 여자가 살을 빼기 위해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포도만 먹고 밥은 안 먹던 여자는 5일째 되던 날 그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너무 놀란 가족들은 급히 여자를 업고 응급실로 달려갔다. 환자의 엄마가 다급하게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 선생님, 영양실조 인가요?”

그러자 의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다. “농약 중독입니다”

- 이덕승(60)

홍수와 저수지에 얽힌 이야기

김경자(버지니아)

“아이고 문 좀 열어요!” 수리조합 관사의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퍼붓는 빗소리의 한밤중에 우리 가족들이 깨어났다. 해마다 여름이면 홍수와 장마로 시달리던 내 어린 시절의 고향의 여름 풍경이었다. 그날 밤에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수리조합의 이사였던 나의 조부님은 저수지 문을 열라 말라는 주민들과 자주 논쟁을 벌였다. 한때는 홍수가 나면 높은 곳에 있는 중학교 교장의 사택으로 물 피난을 간 적도 있었다.

또 어느 해는 홍수 뒷날 재미를 보던 (철이 없어서) 동네 큰 시냇물 구경을 가서 물이 불보다 무섭다는 사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 광경이 생각난다, 큰 나무 작은 나무, 살아있는 돼지, 조각난 지붕들이 진흙탕물에 동동 쏜살같이 떠내려갔다. 그러나 어린 우리들은 집에 있는 우물이 부풀어 올라 바가지로 바로 물을 떠서 좋아 했다.우리 엄마는 부엌 바닥이

한강이 되어 마당에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드시던 불편함도 모르고 즐거워하던 기억이 난다.

조부님의 관찰이던 저수지는 가끔 소풍을 가서 즐기던 기억도 있지만 그 깊은 물속에 잠긴 이야기는 마음속에서 애달프게도 한다. 6.25 사변 이후 지리산에 남아있던 공비들이 가끔 나와서 양민을 괴롭힐 때 한 공비가 경찰한테서 쫓겨서 저수지에 총을 버리고 도망을 치기도 했다. 경찰은 조부님에게 증거물을 찾아야 한다고 저수지의 물을 빼라고 명령했다.

“당신이 물을 빼면 수많은 농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하며 반대를 하시니 경찰도 퇴각했다.

많은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의 사촌 철수 아제가 저수지 중턱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대낮에 세 살짜리 쌍둥이 자매들이 아장아장 걸어서 올라가 물속에 빠져 버렸고 철수 아제는 비탄에 빠져 한동안 많은 고생을 했다. 나중에 애를 다시 더 낳아서 기르고 있다지만 잃어버린 애들에 대한 기억은 잊을 수없이 많은가!

내가 좋아하던 아저씨였는데...

고향의 저수지는 지금 어떨까 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문득 생각이 난다.

필자: 진창건(61) 동문 부인

고치고 싶은 마음

김주평(68, 버지니아)



1961년 초여름 어느 날 오후였다고 기억된다. 나는 이리 남성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공과대학에 가려고 입시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6월 어느 날 문득 의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었다. 그때도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나는 부서진 것을 고쳐보려는 취미가 있었다. 외과 의사가 되면 부서진 사람들을 고치는 재미있는 일을 할 수 있겠다고도 생각한 듯하다.

그날 밤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생각을 정리, 계획하고 확정시켰다. 그해의 대학 입시는 전국 국가고시였다. 그런데 의과대학과 내가 준비하여 공부하던 공과대학 공부와는 시험과목이 두 가지가 달랐다. 따라서 내가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두 과목을 4개월 안에 나 스스로 공부해야 했다. 결심이 필요했다. 공부에 우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 수없이 나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날부터 나는 잠을 밤 10시부터 아침

1시 10분까지 3시간 10분으로 결정했다.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되었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주숙이 누나가 저녁식사 후에 큰 그릇에 커피를 매일 만들어주었다.

처음에는 많이 힘이 들었지만 차츰 습관이 되어 매일 어김없이 자고 깨어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아침 4시면 어머니가 새벽 기도회에 가시는 기척이 들렸고 어머니의 기도는 나의 힘이였다. 잠이 모자라면 코피가 난다는 말이 사실인 것을 나는 내 경험으로 그때 알게 되었다. 몸이 조금씩 약해진 것을 느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굶히지 않고 내 계획을 실천해 나갔다.

그해에는 대통령 명령으로 대학입시에 체력검사도 포함되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왼손 던지기였다. 나는 왼손으로 테니스 공을 10미터도 던질 수 없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10점을 빼앗기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거울 앞에서 오른손과 왼손의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교정해 나갔다. 두 달간의 나의 노력이 두 손의 던지는 거리를 놀랍게도 똑같이 만들어 주었다. 공교롭게도 결국 이런 왼손에 대한 노력이 후일 내가 외과의사가 되어 정형외과 수술을 할 때 왼손을 오른손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와 같은 옛일을 되돌아보니 오늘 당장은 어려운 일들이라도 견디고 극복하면 훗날 좋은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시계탑 7월호 편집회 초록



2026년 7월 11일 동부시간 오후 1시 Zoom으로 편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는 노영일, 서윤석, 서량, 서귀숙, 황창근 사장, 광귀병 사무장이며 박은경, 서인석 두 편집위원은 미리 양해를 구했다.

7명의 동문의 부고와 추모사가 지난 3개월 사이에 모였다. 장학기금의 광고와 새로 모인 장학금 광고에 대하여 또 연구기금에 대한 기사를 의논했다. 또한 2026년 함춘미주공로상 수상자인 노영일, 김정아, 장학위원회(위원장 이익재), 그리고 학장상 임경빈 동문에 대한 기사와 사진을 게재하도록 했다.

이번에 모인 원고의 분량은 적당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만일에 부족한 경우에 대한 대책을 의논했다. 항상 모든 원고를 세밀히 검토하여 교정을 하여주는 서귀숙 편집위원에게 다시 감사를 표했으며, 젊은 동문 인터뷰와 함께 이번 호에는 까다로운 원고를 감수한 박은경 편집위원과 새로 업무를 맡은 광귀병 사무장이 여러 면에서 기사 정리를 잘하여 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했다.

첫 면에 신임 회장 이름이 들어가는 난에 발행처: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로 하자는 대다수의 의견을 모았고 회기는 제55대 회기로 명명하기로 합의했다. 첫 면에는 남명호 전회장의 이임사와 운영위원회 보고와 첫 번째 그 책임을 맡은 강민종 동문의 사진을 포함한 기사를 신기로 했다. 원고를 근래에 많이 청탁하여 모아오는 노영일 편집위원에게 모두들 감사를 표했다.

타계한 동문 중 63년 졸업 한 분, 70년 졸업 한 분, 그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아 조심스럽게 다루기로 했으며 고인의 뜻에 맞게 기록에만 남긴다. - 편집장 서윤석

농담 골목

동문서답

의사: 참 때 맞춰 잘 오셨습니다.

환자: 제 병이 그렇게 중증입니까?

의사: 천만에요, 만일 내일까지 내버려 뒀다면 완전히 나을뻔 했으니까요.

명답

의사: 어디가 아프세요?

환자: 내가 어디가 아픈지 진단해 보세요. 수의사는 병에 걸린 동물이 말을 안해도 진단을 부치던데요?

유과에 바치는 헌사 獻辭

허공虛空을 베어물다



속빈 강정(유과)

바삭 부스러지는 가벼움이 유과의 생명이고 정체성이다. 입술에 닿는 작은 압력에도 사뿐히 허물어진다. 연인의 품속에서처럼 연약하게 무너져 내린다. 설탕이처럼 빠죽빠죽 신경질적으로, 쪼개지거나 날카로운 조각들로 찌를 듯 갈라지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허물어진다. 유과(강정)가 이 가벼움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그 속에 들어 있는 “빔” 덕분이다. 속이 비어 있기에 제사상, 잔칫상에까지 올려질 만큼 풍성한 몸집을 지니게 된 거고, 바삭한 식감과 함께 경쾌하게 허물어져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다. “겉은 그럴듯하면서 실속은 없다”라는 속빈 강정에 대한 비유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어쩌면 부스러질 줄 아는 능력, 자기의 취약함을 숨기지 않는 태도, 무너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함이야말로 유과의 강인함을 보여주는지 모른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오는 겸손과 지혜. 유과의 강함은 버티는 데 있지 않고, 부서질 줄 아는 데 있다.

요염하지 않다. 수수하다. 킬킬 또각거리는 오피스 걸도 아니고 “딱 긴 청바지 입고 그 카페로” 돌진하는 여대생도 아니다. 차라리 넉넉한 시골 처녀다

때론 둥그랗다. 하지만 탁구공이나 골프공처럼 엄격한 球形이 아니다. 완벽함이란 인위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다. 자를 대고 자르지 않고 컴퍼스를 대고 그리지 않는다. 대충대충 손 가는 대로 따라간 흔적이 역력하다. 어딘가 찌그러져 있기도 한 이 자연스러움! 한 발짝 물러선 이 여유, 이 아등바등하지 않음!

길쭉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누에고치를 닮았다 해서 견병(繭餅)이라고도 불렀다고 전한다. 허리, 가슴, 엉덩이 같은 구분은 없다. 그저 두리뭉실하다. 山海經에 나오는 중앙의 神 혼돈을 닮았다. 모

김 창 남(69, 대뉴욕)

나지 않은 마음씨로 이웃이 좋아했다던, 神, 혼돈. 만물의 근원이라고 장자가 그토록 존경했던 혼돈,

혼돈(混沌)의 우화, 이웃 속과 흠이 혼돈의 대접에 보답하고자 인간의 일곱 구멍을 뚫어 주자, 혼돈이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 유과야말로 그 구멍 없는 혼돈의 상태를 닮았다. 겉은 부드럽고 둥글지만, 그 안에는 정형화되지 않은 수많은 방과 허공이 숨어 있다. 만약 유과의 속을 억지로 채우려 했다면, 유과라는 존재의 본질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기다림의 철학

바삭한 청각적, 촉각적 식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찹쌀을 물에 담고, 삭히고, 뺑고, 찌고, 반죽하고, 말리고, 튀기고, (조청을) 바르고, (쌀가루를) 입히는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공정이다. 손이 많이 간다.

어쩌면 유과는 단지 만들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 익어 가는 음식이라고 할 수도 있다. 찹쌀을 물에 담가 한 주에서 두 주를 묵히는 시간은 지루한 인고의 시간이 아니라 발효의 시간인 거다. 재료가 스스로 풀리고 삭고 무르익으며 이전과는 다른 상태로 이행해 가는 발효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과의 시작은 시간의 작용에 자신을 맡기는 기다림에 있다.

그리고 이 느리고 은밀한 변화의 리듬은 웅녀(熊女)의 기다림과도 어딘가에서 닿아 있다.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로 견디는 시간 역시 단순한 인내의 시험이 아니라, 한 존재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자기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조용히 익어가는 변형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유과와 웅녀는 겉으로는 멈추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만난다. 그러므로 유과의 발효와 웅녀의 기다림은 둘 다 시간에게 자신을 맡김으로써 마침내

다른 존재, 더 무르익은 존재로 되어 가는 한국적 변형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한갓 난알이 풍성한 유과로, 우직한 짐승이 아리따운 여인으로 변모하는 서사.

유과의 바삭한 비어 있음(허 虛)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그것은 오랜 기다림과 삭힘의 시간을 통과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다. 우리 할머니들이 기다릴 줄 아는, 미래의 새로움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지녔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의 할머니, 웅녀의 기다림의 서사가 있었기에 세상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유과가 나오게 된 거다. 항상 새롭게 태어나는 스스로를 반갑게 맞이(환대款待)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 거다. 조금해하지 말고,

탄허(呑虛)스님

경허의 제자 한암 선사는 한없이 총명한 어린 사미승에게 탄허(呑虛)라는 법명을 내려준다. “허공을 통째로 삼켜버리라”는 뜻일 터이다. 준엄한 요구다.

탄허 스님은 어떻게 허를 삼키셨을까? 虛란 空과 달리 도가(道家)의 어휘니 莊子の 방법론을 따르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자. 즉 귀(耳)로 듣지 말고, 마음(心)으로도 듣지 말고, 기(氣)로 들어라(장자 인진세). 詩的이다. 드라마틱 하다. 무슨 뜻인지 선뜻 들어오진 않지만.

氣로 듣는다는 건 판단과 집착, 분별을 내려놓고 빈마음이 되어 만사가 자연스레 들어오게 하는 그런 듣기를 일컬음이리라. 빈 골짜기에 머물다 흔적 없이 사라지는 바람처럼 나와 허공의 경계가 소멸되어 허공을 삼키고 말고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르신 거 아닐까? 탄허 스님께서는.

이 누리 떠나지 않고

이 누리 떠나지 아니하지 않고

이 누리를 오가는데

아무 걸리는 데 없음이여

마치 바람이 허공을 노니는 듯

(화엄경)

Death valley 죽음의 골짜기

영화 ‘스타워즈’에서 루크 스카이워커가 고향을, 다스베이더의 Storm Trooper들의 습격으로 결단난 행성 타투인(Ta Twin)을 떠나며, 광활한 타투인의

全景을 내려다보는 장면이 있다. 이 장면의 촬영지가 죽음의 골짜기 단테스 뷰(Dante’s View) 전망대다. 발아래로 펼쳐진 배드워터 분지 Badwater Basin의 하얀 소금 사막이 마치 외계 행성의 광막한 별판처럼 보인다. 언어도단 심행멸처(道斷 心行處滅 - 말이 끊기고 마음이 작용을 멈춘 곳)까지는 아니더라도, 발 밑에 펼쳐진 허공(void)은 내가 맞서 볼 상대는 아니다.

압도한다. 여기 바람은 “노니는 것” 같지 않다. 거칠고 격하다. 빨리 들어갈 것 같은 공포!

젓더미가 된, 다시는 못 올 고향을 떠나는 루크의 마음에도 “바람이 노닐 공간”은 없었으리라. 氣로 듣는다는가, 바람처럼 허공을 노닌다는 건 서재에서나 부려 보는 호기豪氣일 뿐, 나는 그저 무서울 따름이었다. 자연의 거대한 ‘허(虛)’는 인간의 존재를 한없이 초라하게 만드는 공포의 낭떠러지였다.

허공을 베어 물다

허공을 삼키기는커녕, 허공에 삼켜질지도 모르는 공포로부터 황급히 도망친 나는 그저, 유과의 과질(菓實) 새에 가두어진 허공을 한 입 베어 물뿐이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상대해 볼 만한 크기다. 나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당한 그 무력감과 공포에 양값음이라도 하듯 과질새에 응축된 허공을 베어 물고 질근 질근 씹어 송두리째 삼켜버린다.

이 허공을, 자그마하나마, 포획해 준 유과에게 이를 가능케한 우리 할머니들의 기다림의 지혜에 그리고 우리 왕 할머니 웅녀의 기다림의 서사에 이 글을 바친다.

흐지부지 현軒에서, 어영부영 늙은이

덧붙이는 말

유과가 우리 조상님들이 남겨 놓은 名作이라면, 그것은 “옛날에 한 번 완성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새 뜻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삭힘은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라 시간 속에 자신을 맡기는 일이고 부풀음은 단순한 팽창이 아니라 무거움에서 가벼움으로의 이행이다. 웅녀와의 엉뚱한 만남조차 새로운 해석의 하나다. 전통은 단순히 보존될 때보다 다시 해석될 때 더 깊이 살아난다 하지 않나.



산티아고 순례길

박계영(90, 시카고)

해서겠지요. 저는 나름 두 가지의 목적 모두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최초의 순례길인 프랑스길(Camino de Santiago, Primitive, or French Way)중 Sarria에서 시작해 목적지인 산티아고(Santiago de Compostela)까지 가는 118km의 가장 흔히 가는 길을 6일 동안 혼자 걷는 여정이었습니다. 첫날은 사리아에서 자고, 아침에 의지 좋게 23파운드 나가는 묵직한 백팩을 매고 의욕적으로 시작했으나 산등성이를 오르면서 등에 매고 있는 백팩이 너무 무거워서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다 쉬기를 반복해 간신히 23km를 7시간 동안 걸어 다음 목적지인 Portomarin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는 짐을 나르는 luggage transfer를 사용해서 등이 한결 가벼워졌으나, 매일매일 6-8시간씩 걷는 일정은 평소 운동을 꽤 한 제게도 꽤 벅차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목적지 마을에 도착해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예쁜 스페인 마을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 지역 특산의 Galician 화이트 와인과 해산물 요리는 낮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기에 딱 맞았기에 그래도 일정 내내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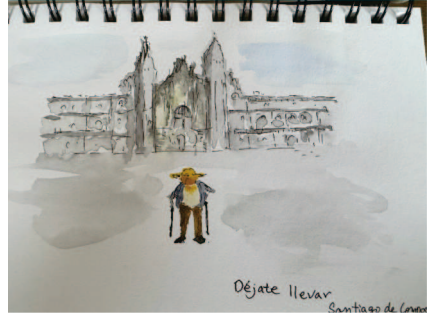
이 길은 천년 동안 순례자의 발길이 묻어 있는 길이어서 인지 몰라도 오래된 큰 나무숲과 돌담길, 자주 보는 시냇물, 그리고 오래된 스페인의 작은 마을들이 연결되어서 주변의 경치가 너무도 아름답고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지나치며 만나는 전세계에서 사람들도 모두 착하고 좋은 사람들 처럼 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벨기에서부터 걸어오는 68세의 할머니, 프랑스에서 부터 걸어오는 스웨덴 아줌마, 아일랜드 젊은 청년 그룹, 그리고 한국에서온 젊은 두 사나이.

다들 이 고생되고 힘든 길에 들어서 이유는 다르지만 어쩐지 같은 길에서 같은 목적지를 가고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 입에도 불구하고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면서 들린 성당들은 이미 낡고 무너져 가고 있어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더 이상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 고통의 길에 오르도록 하는 이유는 뭘까요?

천년 전, 이 길이 순례자의 길이 이었을 때, 종교적 신앙심으로 이 길에 목숨을 걸고 들어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설의 산티아고 성당에 야고보 성인에게 가서 구원의 손길을 받기를 바랐겠지만, 지금 이길에 선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들은 왜 산티아고로 가는 걸까요? 거기 산티아고 대성당에 가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길을 떠났고, 그리고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걸까요?

순례길을 마치고 생각해 보니, 목적지는 산티아고가 아니고, ‘길’ 이었던 것 같습니다. 길에서 본 것들,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길 위에서 생각하며 떠올랐던 것들이 이 순례길의 목적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대성당에 도착하니까 힘든 며칠이 생각나서 막 감동이 몰려오지만, 곧 더 이상 길을 ‘길’아 없다는 허탈감도 동시에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처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서 이러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도, 이 ‘길’ 위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뵈고 싶었고, 세상을 먼저 떠난 아내를 만나서 곧 우리 큰애가 곧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려주고 싶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별로 달라지지 않은 일상에 돌아와서 일하면서 가끔은 그 ‘길’이 문득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벌써 그렇게도 힘들었던 그 길이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정신나간 생각이 드네요.



서울아산병원 내에 갤러리가 있어 작가들의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병원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의대 후배의 이름을 찾아 이메일로 내 작품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얼마 후 정중한 답장이 왔는데, 전시회는 병원장이 직접 관할하는 사항이 아니라 전시 소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매년 9월 말까지 접수된 작품을 저명한 화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뒤 12월 말에 다음 해 초대 작가를 발표한다는 내용이었다. 인터넷으로 응모 서류를 작성하면서 보니 지원 자격이 두 가지였다. 첫째는 미술대학을 졸업하여 미술을 전업으로 하는 작가일 것, 둘째는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일 것이었다. 나는 두 조건 모두 해당되지 않았기에 큰 기대 없이 응모하였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선정되어 2021년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시회를 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많은 작품을 어렵게 한국까지 가져가서 불과 일주일만 전시하는 것이 아쉽게 느껴졌다. 마침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영상의학과에 계시다가 정년퇴직 후 전주예수병원으로 옮기신 김윤환 교수님이 생각나 전주에서도 전시회를 열 수 있을지 여쭙어보았다. 그런데 김 교수님은 오히려 내가 에티오피아 명성병원에서 봉사하던 시절인 2016년, 서울 명성교회에서 전시회를 열어 작품 판매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셨다. 나는 모든 수익금을 에티오피아 명성의과대학생 장학금으로 100% 기부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냐고 물으셨지만, 당시에는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그 후 김윤환 교수님께서 여러 곳을 수소문해 주신 덕분에 서울아산병원 전시회를 시작으로 서울 밀알미술관, 대구 천성감리교회, 전주예수병원 구바울기념의학박물관, 극동방송 갤러리, 군포 지샘병원 등에서 계속 전시회를 열 수 있었다. 그리고 전시회에서 판매된 모든 작품의 수익금은 한국기독교사회에 기부하였다.

마침 세계 기독교의사들이 4년마다 모이는 ICMDA(World Congress)가 2026년 한국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되었고, 우리는 그 대회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도 2024년과 2025년에 전주, 대구, 순천,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계속 전시회를 열었고, 모금액도 점차 늘어났다. 그 무렵부터 한국기독교사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는 밀알기도회에 시카고에서 Zoom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시카고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후 3시(서머타임 종료 후 오후 4시)였지만 가능한 한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그렇게 기도회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ICMDA 준비에도 자연스럽게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를 총괄하는 김윤환 교수님과 긴밀히 상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전시회를 통해 모은 기금이 미화 6만 달러를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이 기금을 가장 의미 있게 사용할 방법을 논의하였고, 결국 저개발국가의 의과대학생과 젊은 의사들을 우선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아프리카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으로 동남아시아를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남미 지역과 모든 나라의 시니어 의사들은 가능한 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해 온 ICMDA 대회가 다가왔다. 그런데 항공권을 구입하려는 시기에 이란과의 전쟁이 발생하면서 항공료가 크게 올라 왕복 항공권 일반석(Economy)이 3,420달러까지 치솟았다. 아내는 무릎 관절염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고려한 끝에 이번에는 나 혼자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터 발표와 구두 발표를 각각 하나씩 맡게 되어 두 편의 강의를 준비하였다.

첫 번째 발표는 “Medicine, Mission and Art” 라는 제목이었다. 의사로 살았던 과정, 미국으로 이민 온 후 교회에 출석하면서 의료선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야기, 30여 개국을 다니며 은퇴 후 장기 선교지를 찾다가 결국 에티오피아를 선택하게 된 과정, 그리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아디스아바바 명성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의과대학생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던 경험을 소개하였다. 또한 틈틈이 그림을 그려 에티오피아, 한국, 시카고에서 전시회를 열었고, 작품 판매 수익금 전액을 이번 ICMDA에 참석하는 저개발국가의 의과대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항공료 지원에 사용하게 된 과정도 함께 나누었다. 두 번째 발표는 “Visiting Behind the Iron Curtain”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문이 닫히기 전에 두 차례 방문하여 의료선교를 했던 경험을 간단히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드디어 6월 23일, 대한항공으로 시카고를 떠났다. 일반석에서 14시간 반을 보내는 것은 다소 불편했지만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서 SK 텔레콤의 SIM 카드를 구입해 곧바로 한국의 지인들과 연락을 할 수 있었고, 6006번 공항 버스를 타고 서울로 들어갔다. 마중 나온 후배 Dr. Lee의 아파트에서 첫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호텔보다 다소 불편한 점은 있었지만 빈방을 내어 주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친척 어른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전철 안이나 동네 곳곳에서 스케치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한 오랜만에 한국 음식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 주일에는 에티오피아와 깊은 인연이 있는 명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오랜 친지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함께 식사하고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6월 29일에는 친지 세 분께 선물로 받은 돈을 모아, 에티오피아의 Asfaw 목사님이 7월 말 시골 지역에서 약 2천 명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집회에 도움이 되도록 KB 국민은



행을 통해 송금하였다.

이후 김포공항에서 국내선을 이용해 제주에 도착하였다. 공항에는 ICMDA 자원봉사자들이 팻말을 들고 외국에서 온 참가자들을 친절히 안내하고 있었다. 공항버스 601번을 타고 싱그러운 제주의 바람을 맞으며 “ICC 제주” 정류장에서 내렸다. 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지하 등록처에서 명찰을 받은 후 가까운 부영 호텔로 갔는데, 프런트 데스크에서 내 이름이 등록되지 않아 한동안 기다린 후 결국 C동 3407호를 배정받았다. 가족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리조트형 객실로 침실 두 개와 넓은 거실, TV와 간단한 조리 시설까지 갖춘 공간이었다. 다섯 명이 함께 사용하게 되었는데, 혼자 사용하는 방보다는 다소 불편했지만 많은 참가자들로 객실이 부족했던 것 같았다. 함께 지내게 된 분들은 마다가스카르에서 20년째 사역 중인 외과의사 이재훈 선교사, LA에서 오신 이규성 장로와 장수원 목사, 그리고 순천의 서종옥 장로였다. 서로 금세 친해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도착 첫날은 저녁 식사 시간을 놓쳐 약 20분을 걸어 “중문생선구이” 식당에서 혼자 해물탕으로 저녁을 해결하였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한 뒤 조금 떨어진 BY Youth Training Center(유스텔)로 이동하였다. 셔를 차량을 이용했는데 운전 봉사를 하시는 전주예수병원 산부인과 김경진 과장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이번 대회를 위해 많은 분들이 자비를 들여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의사와 선교사뿐 아니라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300여 명의 봉사자들이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들의 수고 덕분에 1,2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불편함 없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점심 식사는 비교적 작은 지하 식당에서 이루어졌지만 봉사자들의 질서 있는 안내 덕분에 큰 혼잡 없이 진행되었다.

오후 2시 개회예배에서는 한국의 젊은 찬양팀이 영어 찬양으로 은혜로운 시간을 인도하였다. 이어 싱가포르의 Patrick Fung 박사가 느헤미야서를 중심으로 “Building God’s Kingdom Amongst the Broken”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고, 김민철 선생은 Biomedical Ethics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다음 날에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Dr. Yeabsira Belete Kiros를 만났다. 그녀는 내가 항공료를 지원한 젊은 의사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 2025년 명성의과대학 제7회 졸업생이며 수석 졸업자였다. 또한 안동성서병원 신우회의 장학금을 6년 동안 받았고, 현재는 명성병원에서 일반의와 Health Marketing Coordinator로 근무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Hong-Edelweiss 장학 증서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점심을 함께 하며 오래된 친구처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울 명성교회 창립 47주년 기념 예배 참석을 위해 일찍 서울로 올라간다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라고 10만원을 건넸다. 앞으로 내과 전문의가 되겠다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하였다.

수요일 저녁에는 Culture Night가 열렸다. 아프리카와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한 여러 나라 참가자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음악과 춤을 선보이며 각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까지는 의과대학생과 젊은 의사들을 위한 Pre-Conference가 진행되었고, 7월 2일 오후부터 World Congress가 시작되었다. 개회식에서는 준비위원장 김윤환 교수가 Hong-Edelweiss Scholarship을 소개하였고, 영국의 Dr. John Wyatt가 의료윤리에 관한



기조강연을 하였다.

1, 200명이 넘는 참가자와 300여 명의 봉사자가 한꺼번에 식사를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걱정했지만, 탐라홀에 마련된 넓은 연회장은 놀라울 정도로 잘 준비되어 있었다. 다양한 음식이 풍성하게 제공되었고, 모든 참가자가 한자리에서 여유롭게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회의실 가운데 하나를 Poster Presentation 전용 공간으로 꾸며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의 86개 포스터가 전시되었다. 나 역시 두 편의 발표 내용을 포스터로 전시하며 많은 사람들과 뜻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7월 3일에는 내가 발표할 차례였다. 오전 11시 5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를 진행하였다. 마침 제주에 사는 후배 Dr. 한종수 부부와 우리 셋째 아들 부부도 참석해 주었고, 발표 후에는 함께 장어 전문 식당에서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말리에서 참석한 한 여의사가 겸상적혈구병(Sickle Cell Anemia)으로 입원했고, 에스와티니에서 사역하는 박재형 선교사는 폐렴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큰 사고 없이 대회가 진행되는 것만도 감사했고, 두 분 모두 속히 회복하기를 기도하였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 250주년을 한국에서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었다. 이날 이대영 선교사는 “Building God’s Kingdom Amongst the Broken”이라는 대회 주제에 걸맞은 귀한 말씀을 세 차례 전하였다. 그는 외과의사이자 신학을 공부한 선교사로 예멘과 레바논에서 사역했고, 현재는 캄보디아 선교병원 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나 역시 과거 이집트 단기선교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어 더욱 반가웠다. 저녁 Celebration에서는 130여 개국 참가자들이 각국의 국기를 들고 입장하였고, 자기 나라 국기가 등장할 때마다 뜨거운 환호가 이어지는 장관이 펼쳐졌다. 이어 열린 International Night에서는 미국 대표단과 함께 미국 국기 무늬 넥타이를 매고 “America the Beautiful”을 합창하고 짧은 연극에도 참여하였다. 각 대륙 참가자들의 전통 의상과 춤, 문화 공연은 밤 11시가 넘도록 계속되었고, 젊은 참가자들은 헤어지기 아쉬워 늦은 시간까지 사진을 찍으며 교제를 이어갔다. 7월 5일 주일은 대회의 마지막 날이었다. Dr. Jeff Barrows는 안락사, 동성애, 낙태 등 의료윤리의 어려운 주제들을 다루며 기독교 의사들이 가져야 할 성경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쉬는 시간에는 ICMDA의 CEO인 Dr. Peter Saunders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준비한 두 점의 그림 가운데 “Intervention”을 선물하였다. 그림 뒷면에는 “Faithful Servant in a Mission Hospital”이라는 제목을 적고 김윤환 교수에게 영국으로 잘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다. 마지막 성찬식에서는 참가자 모두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중보기도를 드린 후 모든 공식 일정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 점심 식사 때에는 오카리나 연주를 들으며 식사를 마쳤다. 식판을 반납하러 갔다가 연세가 많은 봉사자들이 남은 음식을 버리고 그릇과 수저를 분리하는 모습을 보고, 오후 일정도 없었던 터라 자연스럽게 함께 봉사하게 되었다. 식판을 받아 정리하며 금세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그날 저녁은 객실을 혼자 사용하게 되어 오랜만에 조용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저녁에는 브라질에서 온 의과대학생 Arthur, 미국인 자원봉사자 David, 그리고 김윤환 교수와 함께 “신우성흑돼지”에서 식사를 한 뒤 “Seas” 리조트를 방문하였다. 하루 숙박료가 약 100만 원(미화 약 800달러)에 이르는 고급 리조트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다섯 명이 한 방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보냈던 지난 일주일의 기억이 더욱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7월 6일 월요일부터는 선택 프로그램(Optional Tour)으로(다음면에 계속)

영어로 쓰는 시조4

시조의 세계화



박종희 (75, 시카고)

“시조는 두뇌를 총명하게 만들고 뇌 노화를 완화할 수 있다”

오늘은 구순(九旬)을 넘긴 미국의 시조 시인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세종 국제 시조 경연대회에는 전 세계 51개국에서 총 615명이 작품을 제출하였고, 그중 37명이 파이널리스트에 올랐으며, 최종 7명이 수상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95세와 91세의 시인도 포함되어 있어 저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먼저, 알레그라 실버스타인 (Allegra Silberstein)은 95세로,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작품은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되었습니다.

Untitled Allegra Silberstein
The swallows have left our barn...it seems lonely without them there now only dust motes are seen flying between abandoned nests I must wait for the wild geese call, announcing Spring...they'll return.
제비들 떠난 텅 빈 헛간, 쓸쓸함만 감돌고 버려진 둥지 사이로 먼지만 떠다닌다 기다리자, 기러기 울음. 봄이 오면 돌아오리
The swallows / have left our barn... /it seems lonely / without them (3-4-4-3=14 음절) There now only / dust motes are seen / flying between/ abandoned nests (4-4-4-4=16음절) I must wait/ for the wild geese call, / announcing Spring... / they'll return. (3-5-4-3=15음절)

실버스타인은 65세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비교적 늦은 시기에 새로운 길을 열었지만 그 열정은 누구보다도 깊고 꾸준했습니다. 그동안 시집 3권과 책북(소책자 시집) 3권을 출간했으며

2010년에는 데이비스 시(city of Davis) 최초의 계관 시인(Poet Laureate)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유시와 하이쿠를 써오다가, 약 1년 전 친구를 통해 시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재미있는 형식이다”라고 느끼며 시조의 매력에 빠졌고, 이후 꾸준히 많은 시조 작품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시를 쓰는 일뿐 아니라,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시와도 같습니다. 정원에서 꽃과 채소를 가꾸고, 일주일에 두 번 댄스 클래스에 참여하며, 매일을 활기차고 생기 있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순을 넘긴 지금도 여전히 배우고, 창작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녀의 모습은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다음으로, 마릴린 다고스틴 (Marilyn D'Agostin) 시인을 소개해 드립니다.

Swans Marilyn D'Agostin
When the swans swim against the current they are still graceful Appearing graceful, they are pushing hard against the tide In the sky, clouds drifting above soar like angels, swans in flight
백조들은 거센 물살을 거슬러 가는데도 우아하다. 우아해 보이지만, 물살을 힘껏 밀어낸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 위로 천사처럼 날아가는 백조
When the swans swim against the current they are still graceful (=14음절) Appearing graceful, they are pushing hard against the tide (=14음절) In the sky, clouds drifting above soar like angels, swans in flight (=15음절)

마릴린 다고스틴 시인은 91세로, 뉴저지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평생 시를 써오신 분으로, 최근에는 하이쿠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작품을 창작해 오셨습니다. 약 1년 전 시조를 배우게 되었는데, 그 매력에 깊이 빠져 지금도 꾸준히 시조를 쓰고 계십니다. 새로운 형식을 배우고 즐기는 그 열정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시를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쿡후를 꾸준히 연습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구순을 넘긴 지금도 이렇게 생기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시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과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미국의 시인 Robert Frost은 “시는 기쁨에서 시작해 지혜로 끝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여러 교육자들은 “시를 쓰고 읽는 것은 사람을 총명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는 사고를 단련합니다. 주의력을 높이고, 언어를 정제하며, 생각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다듬도록 합니다. 시를 쓰는 일은 가장 강력한 두뇌 훈련 중 하나입니다. 집중력과 정밀함을 요구하며, 복잡한 생각을 간결하고 의미 있게 압축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따라서 시는 단순한 예술을 넘어, 두뇌를 단련하는 하나의 지적 훈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조와 같은 정형시는 형식과 음절, 단어 선택을 깊이 고민하게 하여 글쓰기를 하나의 체계적이고 정교한 두뇌 훈련으로 만들어 줍니다. 미국의 저명한 동화작가이자 시조 시인인 Linda Sue Park은 “시조는 당신을 더 총명하게 만듭니다 (Sijo make you smarter)”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미국의 영어 교사들은 시조를 교육 과정에 도입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조는 약 45음절 내외의 세 행으로 간결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표현하도록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글쓰기 학습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형식은 학생들이 단어 선택을 신중하게 하고, 유의어를 깊이 있게 고려하며, 복잡한 생각을 명확하고 정제된 언어로 함축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라고 시조의 교육 효과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시조는 두뇌의 노화를 완화하고 건강한 사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시는 쓰기 힘들어도 시조는 쓸 수가 있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세 문장

작은 행복



김병오 (69, VA)

외식 날을 기다려 단골집
우미가優美家에 간다

아내는 갈비구이 돌솥비빔밥을,
나는 조기구이 된장찌개를 시킨다
필연적 오랜 식성이 작동하는 일,
우리네 품성이 그렇듯이

식사를 하다 보면
그녀는 조기구이 돌솥비빔밥을 먹고 있고
나는 갈비구이 된장찌개를 먹고 있다

식성이 울고
식탁이 조금씩 뒤틀린다

온전한 토막들은 서로의 손갈 위로
눈치껏, 사랑처럼 얹혀지고
우리는 메뉴에 없는 식사를 하고 나온다

살다 보면,
밥알이 설고 곤두설 때가 많다

메뉴에 없는 삶이 또 그럴까

살다보면,
엇갈린 자리에서 익어가는 행복
평생 걸리는 사랑 맛이다.

으로 쓴 후에 차근차근 각 줄을 15음절로 줄여 주시면 시조가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마지막 줄(종장)에 살짝 twist(반전, 전환, 뜻밖의 전개)를 넣으면 재미있는 시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오늘, 단 한 편의 시조를 써 보십시오” 하고 권해 드립니다. 그 짧은 세 줄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여러분의 뇌를 깨우고 뇌의 건강을 지속하며,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보세요.

〈전면에서 계속〉한국 동남부와 서울을 둘러보는 일정에 21명의 참가자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아침 일찍 식사가 문을 열기 전에 특별히 부탁하여 간단한 식사를 한 뒤, 오전 7시에 준비된 버스를 타고 제주공항으로 향했다. 이스타항공을 이용해 부산으로 가는 동안, 제주에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여러 도시로 국내선 항공편이 쉴 새 없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이 참으로 놀랍게 발전했음을 새삼 실감하였다.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60대의 한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취미로 등산을 하며 히말라야를 여러 차례 찾았고, 티베트에서 한 달 이상 머물며 암벽등반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열정에 감탄하며 마치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또한 짐바브웨에서 사역하는 전진경 선교사로 부터 부탁을 받아, 그녀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대신 참가한 젊은 의대생과 의사 네 명(여성 3명, 남성 1명)을 특별히 돌보며 사진도 많이 찍어 주었다. 부산에 도착한 후 “영주한우숯불갈비”에서 가자미구이와 된장찌개로 점심을 먹고 “일신기독병원”을 방문하였다. 홍경민 원장과 이정화 원목실 전도사의 안내로 병원의 역사를 소개받았다. 호주에서 온 맥켄지(Mackenzie) 선교사가 1910년 나병 환자를 돌보며 의료사역을 시작하였고, 부산에서 태어난 두 딸인 Helen Mackenzie(매헤란)는 산부인과 의사로, Catherine Mackenzie(매헤영)는 간호사로 평생 헌신한 이야기를 들었다. 병원의 역사 영상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의 뛰어난 의료 수준 뒤에는 이름 없이 헌신한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다시금 깨

닫게 되었다. 특히 아프리카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온 젊은 의사들에게도 큰 도전과 감동이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파푸아뉴기니 의사를 그린 후에 함께

이후 편안한 버스로 대구로 이동하였다. 박성근 장로님 가족이 따뜻하게 맞아 주었고, 함께 불고기와 샤브샤브, 냉면으로 저녁 식사를 한 뒤 루프톱에서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에는 대구 최초의 5성급 호텔인 “Bareumi Hotel”에서 혼자 묵게 되었는데, 며칠 동안 여러 사람과 한 방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혼자 큰 방을 쓰게 되니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다. 7월 7일 화요일에는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박성근 장로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을 방문하였다. 김진희 병원장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으며, 제중원으로 시작하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발전해 온 병원의 역사를 영상으로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어 “청라언덕”을 방문하였다. 이은상의 가곡 “청라언덕 위에 백합 필 적에”로 널리 알려진 이곳에서, 청라(Blue Ivy)가 미국 선교사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져온 담쟁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대구 능금의 역사도 배웠다.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가져온

사과나무가 대구의 더운 기후에 잘 적응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한국에 사과 재배가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도 매우 흥미로웠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제왕절개수술이 이루어진 제중원의 복원 초가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후 “제일교회 박물관”에서는 옛 활판 인쇄기를 이용하여 독립선언서를 직접 인쇄해 보는 특별한 체험도 하였다. 점심은 대동면옥에서 냉면을 맛본 뒤, 약 4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동안 미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보낼 그림엽서를 수채화로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서울에 도착해서는 “경복궁” 식당에서 갈비와 비빔냉면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합정동의 Juni Bino Hotel에 여장을 풀었다. 대구에서 묵었던 최고급 호텔과 비교하면 다소 소박했지만, 많은 인원이 저렴한 비용으로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한 분들의 수고를 생각하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마지막 날인 7월 8일 수요일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집을 버스에 싣고 “RYSE Hotel” 최상층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한 후 연세의료원으로 향했다. 최원규 교수, 박진용 교수, 신전수 교수께서 따뜻하게 맞아 주셨다. 연세의대 설립자인 에비슨(Avison) 선교사와 10만 달러를 기부한 세브란스(Severance)의 이름을 따 세브란스병원이 세워지고, 이후 연희전문학교와 합쳐 오늘날의 연세대학교가 되기까지의 역사와 한국 의료 발전 과정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이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묘원을 방문하여 145명의 선교사와 가족들의 묘역을 둘러보았다. 한국 근대화와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선교사들의 희생을 생각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모든 일정을 마친 후에는 짐바브웨에서 온 의대생과 젊은 의사 네 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사 부모 아래 자라 현재 그곳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정예진 학생에게 각각 한국 돈을 조금씩 전하며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나는 그 후 이틀 동안 서울에 더 머문 뒤, 7월 11일 시카고로 돌아왔다.

이번 ICMDA World Congress에는 130여 개국에서 1,2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참석하였고, 3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섬겼다. 한국기독교사회 임원들은 수년 동안 빈틈없이 준비하며 여러 차례 제주를 답사했고, 현지 교회와 기관들의 협력을 얻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의사와 선교사들은 물론, 안내를 맡은 고등학생들과 찬양팀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적이었다. 나는 비록 준비위원은 아니었지만, 기도로 이 대회를 준비하며 여러 차례의 전시회를 통해 마련한 6만 달러 이상의 작품 판매 수익금을 모두 기꺼이 기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50여 명의 저개발국가 의과대학생과 젊은 의사들의 항공료를 지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 기독 의료인들이 함께 모여 배우고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작은 디딤돌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것으로 2026년 ICMDA World Congress 참석 보고를 마친다.



사이공강을 배경으로 오른 쪽이 필자

지금 돌이켜 보면 반세기도 훨씬 지난 나의 해군 군의관 시절은 재미있었던 것 같다. “박정희 목 따라 왔다”던 김신조 일당이 휴전선을 넘어 청와대 뒷산까지 침범했던 1968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경제가 찌들고 무척 가난했던 고국에서 그 당시에 붙었던 아메리칸드림을 위해 도미하기 전 필수인 군 복무의 의무를 먼저 마치려고 군에 입대했다. 육군에 앞서 해군과 공군은 먼저 지원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육군에 입대하면 규정의 3년보다 더 늦어져서 제대하는 경우가 많아 3년 복무를 잘 지키는 해군이나 공군을 선호하였다. 특히 나는 바다의 사나이, 해군의 멋있는 이미지와 제복이 좋았고, 해군 기지가 있는 바닷가 항구에서 생활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해군을 지원하게 되었고, 예과 때 가정교사를 했던 학생의 아버지 해병대 고참 대령의 후원으로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진해 해군 통제부 안에 있는 해군의무단에서 김신조 덕분에 새로 생긴 유격훈련과 일주일간의 Hell Week을 포함한 8주간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았다. 중위로 임관하기 전 모든 훈련병들이 진해에서 작은 해군 함정을 타고 통영 앞바다 한산도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제승당에서 신고하고 충무공의 영적 후원을 부탁하고 돌아와 해군 장교로 임관하였다. 하얀 정모와 하얀 정복을 입은 해군 중위로서의 위엄을 힘껏 발휘해 보았다.

해군에 있으면서 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다. 먼저 영화나 잡지책에서 많이 보아 왔던, 바다를 항해하면서 즐기던 낭만적 모습의 마도로스 담배를 피우는 것이었다. 파이프 담뱃대에 그 당시에 인기 있었던 미국의 Christian Pepper 사의 달콤한 향이 들어있는 London Dock 같은 외제 연초를 넣고 불을 붙여 입에 물고 피는 마도로스 담배의 로망이 있어서 임관하자마자 바로 실행했다. 그 당시에는 양담배를 피우다 발각되면 체포되어 벌금을 물어야 했다. 휴가 와서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군복을 입고 마도로스 담뱃대를 입에 물었다. 경찰관이 있어도 국군 장교를 간섭하지 못해 당당하게 담뱃대를 입에 물고 시내를 활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파이프 담배는 향기도 있고 구수하기도 해서 피는 사람뿐 아니라 주위 사람도 그리 싫어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이프 담배를 오래 피면 그 진이 담뱃대에 쌓여 자주 닦아주고 청소를 해주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구수하던 담배 맛이 아주 쓰기만 해서 게으른 사람에게는 귀찮게 여겨졌다. 또 파이프 담배 연초 값도 만만치 않고 구하기도 쉽지 않아 그냥 중단하게 됐다.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사고 춤을 배우는 것이었다. 마도로스 해군 장교면 국제 신사로 사고 춤은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졌다. 그 당시 진해에는 군항이라는 카바레가 있었는데 거의 모든 손님들이 해군 장교였다. 동료들과 또 선배들과 자연히 군항에서 술자리가 있으면 동석한 아가씨들과 사교댄스를 하는 것을 보고 춤을 꼭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해 동료 군의관 둘과 함께 허술한 건물의 이층 다락방에서 사교춤을 가르쳐 주는 아줌마한테서 배웠다. 배우는 사람은 우리 동료뿐만 아니라 아주머니 몇 분도 같이 있었다. 블루스, 왈츠, 트로트, 지르박(지터백), 차차차와 탱고를 아마도 서너 달에 걸쳐서 배웠다. 교습선생 아줌마와 주로 추면서 배웠는데 조금 익숙해진 후에는 다른 교습생들과 같이 실습하면서

나의 해군 군의관 시절을 회상하며

주광국(68, 버지니아)

배웠다. 내 친구는 왈츠를 더 잘 추고 나는 지르박을 더 잘 춘다는 아줌마 교습 선생의 평이 있었다. 그 후로는 카바레 군항에 가면 기죽지 않고 열심히 춘 기억이 있었다. 이때 배운 사교댄스는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즐거움과 도움을 주었다. 댄스를 전혀 못하는 친구들에게 간단한 기초 스텝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병원 파티, 동창회 파티, 한인회 파티 그리고 성당 파티 등 많은 모임에 음악과 춤이 있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열심히 춤추고 활약했다. 특히 지역 동창회나 한인회 파티에 처음에는 춤추는 사람이 없어 우리 부부가 주로 맨 먼저 추면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 나와 춤추곤 해서 나중에는 늙은 제비 부부라고도 불리었다. 유럽 여행 중 이탈리아 Firenze의 Duomo 광장의 한 실외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커피 마실 때 흘러나오는 음악이 좋아 흥이 나서 실외에서 음악에 맞춰 우리가 댄스를 추었더니 거기에 있던 많은 커플들이 따라 나와 춤을 춰서 우리가 또 늙은 제비 노릇했다고 웃은 적도 있었다.

다음 해에 함대에 발령이 나서 그 당시 호위함 Frigate인 대동함(PF-63)의 군의관으로써 복무하게 되었다. 군함이 출항하면 약 4주간은 해상 근무하게 되는데 주로 동해나 서해 바다에 떠 있으면서 입항하지 못한 채 적의 기습이나 간첩활동 따위와 같은 예기치 못한 침입을 막기 위한 경계근무를 했다. 그러다 전투태세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모든 장병이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 가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근무하거나 대기하여야 했다. 함정에 의무실이 따로 배 중앙에 있지만 군의관의 비상대기 위치는 사관실인 장교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비상사태 때 생길 수 있는 부상병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일이다. 장교식당 테이블은 응급상황 시에는 긴급 수술실로 사용되는 곳으로 응급수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테이블 위에는 온 방안을 밝게 비추는 수술실에서 볼 수 있는 큰 수술실 테이블 전등이 있고 캐비닛이나 클로젯에는 약품과 수술용 기구와 준비물들이 항상 비치하고 있다. 한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어떤 군항에서 수능 물개를 잡게 되어 정력에 좋다고 소문나서 모두가 탐을 내는 해구신을 사관실 장교식당에 걸어놓고 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투태세의 비상벨이 울려 모두들 전투태세의 위치로 가 있었고 전투 상황이 종료되어 돌아와 보니 말리던 해구신이 없어져서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고 했다. 아마도 전투태세 때의 위치가 사관실 장교식당인 군의관이 골격했다고 소문이 났었다고 한다. 함대 군의관으로 있으면서 사병들의 성적 건강을 위해 포경수술도 많이 했다. 그통에 사병들이 나뭇조각과 성냥개비로 만들어 준 군함 모형배를 선물로 많이 받아 진해에 귀향 후 몇 주간의 휴가 때 집으로 가지고 가곤 했다.

항해 중 하루 일과가 끝나고 모든 장병들은 저녁식사를 마치면 각자 휴식시간을 갖는다. 사병들의 침실과 휴게실은 대부분 배 아래에 있고 장교의 침실은 배 위에 있고 사관실 장교식당은 유리창을 통해 시원한 바다가 보이는 갑판 위에 있다, 많은 젊은 장교들은 그 당시 유행하던 홀라(Hoola)라는 트럼프 카드 게임을 했고, 나의 소속 함장은 대부분의 병과 고참 해군 장교들과 같이 마작을 좋아해서 저녁 식사를 마치는 대로 함장이 앉아서 식사하던 사관실 테이블 한쪽에 함장을 비롯해 4명이 모여 마작을 하곤 했다. 당직이 없는 함장과 기관장 그리고 군의관은 항상 그 자리에 참석하고 나머지 한자리는 당직이 없는 장교가 돌아가면서 참석해서 마작을 즐기곤 했다. 마작

을 배워본 적이 없는 나는 함장 이하 다른 장교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워서 마작을 했는데 이놈의 마작이 그리 만만하게 볼 게임이 아니었다. 다른 놀이인 민화투나 고스톱 같은 게임은 몇 분 배워서 같이 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이길 수도 있지만 마작은 배우고 익숙해질 때까지 서너 달은 족히 걸려야 했다. 처음 몇 달은 매번 저서 지갑이 텅텅 비면 외상으로 계속했고 오류 개월 지나서야 겨우 수지 계산이 맞게 되었다.

마작은 참으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게임이다. 오래전에 유행하던 한국 마작은 중국과 일본 마작과 조금 달라 40패가 적은 오직 104의 패로 중앙에 벽돌처럼 쌓아두고 각자 13패를 가지고 하는 복잡하고 두뇌를 써야 하는 게임이다. 모든 게임에는 족보가 있는데 마작은 족보의 종류가 많아 익숙해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더 힘들고, 더 재미있는 것 같다. 누군가 말했다. 서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미있는 것은 골프이고, 앉아서 하는 것 중 제일 재미있는 것은 마작이고, 누워서 하는 것 중 제일 재미있는 것은 거시기라고. 중국 영화를 보면 가족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가족끼리 마작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다. 일본에서도 바둑 클럽처럼 마작 클럽이 있어 아주 건전하게 마작을 즐기고 있고 일본에서는 마작 게임을 중계해주는 TV 방송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아주 나쁘게 들어서 마작이라고 하면 큰 도박으로 알고 손사래를 치기도 하고 어떤 어머니는 자기 남편이 마작에 빠져 시간과 재산을 잃어서 자식에게 마작은 절대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했다. 마작은 너무 재미있어서 밤새워 하는 일이 흔했다. 그러나 절제와 도박성을 피지 않고 흥미 본의로 하면 더 이상 재미있는 게임이 없다. 더군다나 노년에는 두뇌를 열심히 써서 치매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일석이조가 된다.

이 마작 게임은 뉴욕주 버펄로에서 practice 할 때에도 계속했다. 그 당시 버펄로에는 서울의대 동창들이 많이 있었다. 나를 포함한 동창 6명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각자 \$100을 모은 자금으로 stock을 사던 Investment Club이 있었다.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합의가 되면 주식을 사고 팔곤 했다. 그러고는 맥주 마시면서 환담했지만 나중에는 환담보다 마작 게임을 했다. 전혀 마작을 해보지 못한 세 동문도 배워서 나중에는 즐기고 좋아했다. 한 선배는 동창회 모임에서 닥터 주가 입은 T-셔츠는 자기가 사 준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가장 인상에 남았던 일은 그동안 투자해서 벌었던 주식을 팔아서 여섯 부부가 함께 Caribbean Cruise를 갔던 일이었다. 항해 중에는 2팀으로 3명씩 게임 테이블에 앉아 3인조 마작을 즐겼다. 어떤 항구에서는 상륙해서 돌아다니며 관광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마작 할 때도 있었다. 돌아올 때에 한산한 카리비안 섬 공항에서 비행기 출발이 너무 오래 지연되어서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공항 바닥에 앉아 했던 일도 있었다.



여러 해 동안 마작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으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직장을 옮기거나 은퇴하여 다른 도시로 이주하여 마작 멤버가 모자라게 되어 열심히 다른 동문을 꼬셔서 가르치고 해서 계속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늦게 새로 참가한 동문들 모두 다 마작을 좋아했고 재미있어 했다.

나도 은퇴해서 버지니아로 이주한 후에도 마작 할 수 있는 친구나 동문을 찾

아보았다. 겨우 찾아 만든 4인조 마작이 COVID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다시 모여 즐겼지만 병환과 사망으로 중단되었다. 하지만 다시 두 선배님을 모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새롭게 시작해서 아직도 마작을 즐기고 있다. 90에 가까운 나이에 쉽게 배울 수 없는 마작을 배워 즐기는 두 분께 경의와 감탄을 느끼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 DC Metropolitan area-DMV (DC, Maryland, Virginia)에 거주하는 많은 의대 동기들과 two foursomes로 골프 치고, 그리고 주로 그다음 날에는 동문 4명이 mahjong group의 이름으로 예약해둔 Public Library의 작고 아담한 방에 오후 1시에 모여 일주일에 한 번씩 마작을 하고 있다. 카운티에 속해 있는 공공시설인 도서관의 작은방에는 4각형의 작은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있고 시원하게 에어컨도 뽕뽕하게 나오는 방에서 마작을 한다는 사실이 믿겨 지지 않는다. 초록색 담요를 테이블 위에 깔고 그 위에서 마작을 4시간 즐기고 난 다음에 근처 식당에서 피자를 먹으며 환담하며 지내고 있으니 더 이상 좋은 팔자를 가진 백수 은퇴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 더군다나 부인들도 저녁식사를 준비 안 해도 되고 잔소리도 듣지 않는다고 무척 좋아한다. 해군 함정에서 배운 마작이 아직도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주고 치매 방지의 두뇌운동을 하게 할 줄은 몰랐다.

함대 근무를 마치고 그 당시 서울에 있는 해병대 사령부 의무감실에서 근무했다. 빨간 해병대 명찰을 달면 용감해진다는 그 빨간 명찰을 달고 출근했다. 퇴근 후에는 이태원에 있는 어느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진료과목으로 내세운 Clinic에서 moonlight를 했다. 낙태수술을 많이 하던 의원으로 저녁에 찾아오는 수술 환자는 약을 먼저 바른 다음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내가 아까정기(Mercurochrome)를 Cervix에 발라주고 다음 날 와서 원장 의사에게 수술을 받게 했다. 어떤 때는 낙태수술 중에 마취된 상태에서 영어로 말하는 여인을 본적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사층에 있는 병실 하나를 나의 숙소로 지내고 있었다. 가끔 더운 여름날 밤 옥상에 올라가 바람을 쐬면서 주위를 둘러보곤 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어느 집 마당 수도가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다. 멀리 있어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 당시 내 눈에는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지금 생각하니 다윗왕이 왕궁의 옥상에서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의 목욕하는 것을 보고 탐내어서 자기의 부인으로 맞이한 성경 구절이 생각나기도 했다.

이렇듯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해군본부 의무감실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베트남에 있는 해군 백구부대 의무실장으로 가지 않겠냐고. 나는 고심을 했다. 해군 백구부대는 사이공에 있어서 주 월과병부대 즉 육군의 맹호부대, 백마부대 및 비둘기 공병부대와 해병대의 청룡부대의 장병 수송과 군수물자들의 수송을 담당해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다. 지금은 호치민시 라고 부르는 사이공은 항구가 아니지만 짧은 사이공 강을 통해 남중국해로 통해 있어 우리 해군 함정들도 사이공 부두에 정박하고 있었다. 백구부대 의무실장은 백구부대 본부와 부두에 정박되어 있는 군함의 장병을 관리하는 군의관으로 전투와는 관계없고 실제로 위험한 군 업무는 없었다. 처음으로 외국 땅을 밟고 생활하고 또 전투수당도 미국정부로부터 받기에 고심 끝에 월남과병 근무를 결심하게 되었다. 사이공으로 가는 날 여의도 공군 비행장에서 같이 베트남의 백구부대로 발령 난 군목 대위와 함께 미군 수송기에 탔다. 이 수송기는 필리핀의 Subic Bay에 있는 Clark 비행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다음 날 습기 차고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찬 무더운 베트남에 도착했다. 사이공은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떼를 지어 <다음면에 계속>

〈전면에서 계속〉다니며 도로는 물론 인도에까지 올라와 주차하고 무척 시끄러웠다. 길에는 긴 옷이라는 뜻을 가진 아오자이, 특히 흰색과 검은색의 아오자이를 입은 날씬하고 가냘픈 여인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해군 함정 위 군목(왼쪽)과 함께

드디어 사이공의 해군 백구부대에 신고하고 숙소를 배정받았다. 내가 배정받은 숙소는 당시 베트남 대통령궁에서 그리 멀지 않은 호텔을 미군이 인계받아 장교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운이 좋아 처음부터 두 사람이 쓰는 방을 배정받았다. 룸메이트인 미 육군 Z 중위는 사이공에 있는 베트남 부대의 고문관으로 아침 출근하기 전에 그리고 가끔 주말에만 방에 나타났다. 평일에는 퇴근 후 사복으로 갈아입고 애인 집에서 자고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샤워하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출근하곤 했다. 말 몇 마디 해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장교 숙소 호텔에는 대부분이 미 육군 장교들이고 그리고 몇몇의 오스트레일리아 장교들과 우리 해군 장교들이었다. 식사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또 다른 장교 숙소 호텔의 식당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식사를 제공했다. 점심에는 12시경에 jeep 차로 호텔 식당에서 점심 먹고 숙소에서 가서 낮잠 자고 2시에 다시 지프차를 타고 출근하곤 했다. 이렇게 베트남 남부에 있는 사이공에서는 Siesta를 철저히 지켜서 열대지방의 더위를 식히곤 했고 우기인 여름철에는 하루에 한 번씩 쏟아지는 스콜이라 부르는 소낙비가 쏟아져 조금 시원해지기도 했다.

이 호텔 식당에서 참으로 뜻밖의 친구를 만났다. 그는 나의 의대 동기로 당시 백마부대 사단본부의 의무실에 있으면서 크리스마스 때 사이공에 휴가 와서 저녁 먹으러 이 호텔 식당에 왔다가 만나게 되었다. 반갑게 만난 친구에게 사이공 구경시켜 주려고 그 당시 교통수단이었던 삼륜차를 개조해서 만든 딸딸이를 타고 가던 중 나의 왼손이 무엇인가에 끌려 나도 모르게 좌석에서 일어서게 되었을 때 나의 왼 손목에 있던 손목시계는 옆에서 바짝 붙어서 오던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있던 베트남인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그 외에도 주월사령부에 근무하던 동기와도 여러 번 만났고, 베트남의 휴양도시 봉타우에 있던 비둘기부대 군의관으로 있던 동기를 찾아가서 만났던 일도 있었다.

Z 중위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새 룸메이트가 왔다. Dennis A. Rondinelli라는 매우 성실하고 착실한 미 육군 대위였다. 그는 코넬대학에서 Public Administration 연구로 Ph.D를 받고 ROTC를 통해 미 육군에 입대한 이탈리아 계통의 백인이었다. 나보다 한 살 위고 키는 나보다 조금 작았다. 여러 달을 룸메이트로 같이 지내면서 매우 가까워졌다. 하루는 내가 감기가 걸려 콧물 흘리고 기침하면서 고생하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PX에서 사 온 담배 말보로를 좋아해서 10갑이 들어있는 보루로 사서 옷장 서랍에 두어 놓고 피우고 있었다. 그는 내가 기침을 쿨룩쿨룩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안되어 보였는지 그가 나를 설득했다. “환자가 너처럼 감기 걸려 기침하면서 담배를 태우면 내가 의사로서 뭐라고 환자에게 조언하겠나?”라고 물으면서, 자기가 고향에 있을 때 자기 여자 친구를 담배 끊게 도와주었다고 하고 내가 담배 끊을 결심을 하면 돕겠다고 했다. 나도 그 당시 감기 때문에 담배가 맛없고 쓰기만 해서 금연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금연하겠다고 말하니 몇 번이나 다짐하

고는 내가 피던 담뱃갑을 달라고 해서 줬더니 그 담뱃갑을 손으로 뭉개서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러고는 나머지 안 핀 담뱃갑을 달라고 해서 옷장 서랍에 있던 것을 주었더니 이 담뱃갑은 새것이라 뭉개버릴 수는 없고 자기가 보관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한국 장교의 위신과 국제적인 체면 때문에 금연하게 되었다. 더욱이 양담배 속에서 담배를 끊었기 때문에 아쉬움도 없었다. 그래서 귀국 후 만난 나의 아내는 담배 피우는 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나의 새 룸메이트는 부지런하고 온순하고 성실했으며, 또 성격이 나와 비슷해서인지 나랑 잘 어울렸다. 그와는 주말이 되면 같이 외출하여 식사도 함께 했다. 그때 처음으로 피자를 먹었고 처음 맛본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다. 고등학교 때 안현필이 쓴 영어교재에 피자를 먹었다는 글을 보았으나 그 당시에 한국에 아직 보급되지 않았는지 본 적도 먹어본 적도 없었다. 그다음 주말에는 한국 사람이 하는 한국 식당으로 가서 한국 음식을 먹기도 했다. 베트남 음식도 여러 번 먹었는데 요즈음 가끔 먹는 베트남 쌀국수인 Pho를 먹어본 기억은 없었다. 가끔 시내에 있는 Bar에 가서 술도 마시고 시장 구경도 하고 또 관광도 같이 하곤 했다. 며칠 휴가를 내서 사이공에서 그리 멀지 않은 휴양지이며 한국 육군의 비둘기부대가 있는 봉타우로 관광도 하고 또 대학 동기 군의관 친구도 만날 겸 같이 놀러 갔었다. 이렇게 같이 룸메이트로 재미있게 지내다 보니 정이 들고 마치 국적과 인종이 다른 형제처럼 느껴져 서로 Brother라고 부르게 되었다. 나는 그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의 이름 Dennis Rondinelli와 발음이 비슷한 노대수라고 지었다. 그가 휴가로 홍콩을 갔다 왔는데 부탁할 것 없냐고 해서 나는 알지 못하는 미래의 나의 신부의 결혼반지를 부탁했다. 그 당시 결혼반지로 다이아몬드 반지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나의 약지보다는 작고 소지보다는 큰 사이즈로 부탁했더니 사 와서 훗날 결혼반지로 사용했다. 참으로 고마운 친구다.



Dennis Rondinelli와 함께

다음 해 여름에 나는 귀국하게 되었는데 귀국하는 장교들은 나무로 짠 큰 박스에 짐을 싣고 박스와 함께 우리 해군 군함을 타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계급에 따라 박스의 수와 크기가 달랐다. 나는 친구 노대수를 통해 미군들이 이용하는 카타록으로 주문하여 여러 뮤직 시스템을 구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유행했던 Akai 녹음기와 앰프, 일제 사진기와 TV를 쉽게 구매 박스를 채웠고 빈자리는 화장실 휴지로 가득 채워 손상 없이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가져온 뮤직 시스템과 카메라는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오랫동안 사용했었다.

나의 친구 노대수도 나보다 하루 전 날 미국으로 귀국하여 전역하게 되었다. 전역하면 바로 위스콘신 밀워키에 있는 University of Wisconsin의 강사로 가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다. 나도 귀국해서 전역하면 미국에 인턴과 레지던트의 수료과정을 받을 나의 계획을 알고 그가 협조해 주기로 했다. 그는 밀워키에 있으면서 인턴을 모집하는 모든 밀워키의 병원의 안내서를 보내주었다. 그 도시에는 인턴을 모집하는 병원이 많지 않아 인근 대도시인 시카고에 있는 인턴 모집 병원의 책자들을 보내주었다. 나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Intern matching program에서 시카고에 있는 병원으로 결정이 되어 계

약서에 사인해서 보냈지만 비자가 늦게 나와 그 해에 미국에 들어올 수 없었다. 비자가 늦게 나온 사유는 말 한마디에 기인되었다. 미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을 때 외국에 나갔다가 온 사실이 있으면 신원조사를 추가로 해서 비자가 늦게 나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인터뷰에서 외국에 갔다는 일이 있었느냐의 질문에 나도 모르게 Yes라고 답해서 신원 조사를 추가로 하는 바람에 다음 해인 1973년 6월 중순에 시카고에 도착했다.

일 년 전에 나의 친구 노대수는 테네시 주 내슈빌 있는 Vanderbilt 대학으로 직장을 옮겼지만, 아내와 함께 시카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마중 나와 있었다. 너무나 반갑고 놀랐고 무척 감사했다. 다음 날 그의 도움으로 여러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조용한 동네에 아파트를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었다. 참으로 고마운 나의 친구이며, 나의 아메리칸 브라더였다. 그와의 인연은 계속되었다. 인턴 때 첫 휴가로 Vanderbilt University가 있는 내슈빌로 차를 몰고 가 3박 4일 휴가를 그의 집에서 보냈다.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애인도 없었다. 내 아내가 김밥을 만들어 가서 관광할 때 공원에서 먹곤 했다. 그는 나의 아내가 만든 김밥을 무척 좋아해서 김밥 싸는 법을 배워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혼자서 김밥을 만들어 대학에서 점심으로 먹곤 했다고 했다. 그다음 해 그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하와이 대학 East West Center에서 Post-Doctorial Fellowship을 했다. 그래서 고향인 뉴저지주 트렌턴으로 갈 때는 시카고에 들러서 우리 집에서 하루 쉬고 가고 또 하와이로 돌아갈 때도 우리 집에 들렀다 가곤 했다. 원래부터 중국 음식을 좋아했는데 베트남에서 또 우리 집에서 한식을 먹더니 한국 음식을 매우 좋아했다. 그리고 한국과 한국 여인에게도 관심이 많아 한국 여인을 소개해 주었다. 첫 번째 여인은 선배의 누이동생인데 만나 보더니 너무 Americanized 되어서 깨졌고, 두 번째 여인은 내가 근무하던 병원의 한인 간호사로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식사한 후 데이트 나갔는데 그후 일이 잘되어 서로 연락을 하고 만나고 사랑하게 되었다. 펠로십을 끝내고 그는 Syracuse 대학에 교수로 임명되어 뉴욕주 시러큐스로 옮겼다. 나도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에서 Nuclear Medicine Resident로 하게 되어 노대수와 멀지 않은 같은 뉴욕주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는 데이트하던 그녀와 시카고에서 결혼하게 되어 나는 Best Man으로써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들은 버펄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러큐스에서 살게 되어 우리는 여러 번 왕래하고 휴가도 같이 가곤 했다. 그들에게도 두 딸이 태어났는데 첫 딸은 우리 첫 딸보다 한 달 늦게 태어나고 둘째 딸은 우리 둘째 딸과 생년월일도 똑같다. 참으로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고 신기했다. 어른은 어른끼리 애들은 애들끼리 친구가 되어 재미있게 지냈다. 또 나의 한 작은 처남은 그의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하게 되고 나중에 Rochester University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또 United Nations으로부터 위촉된 임무로 해외 여러 나라를 방문했는데, 그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나의 처갓집 식구로부터 많은 환대를 받은 적도 있었다.

At a Friend's Funeral

허서룡(66, 밀워키)

Can she hear the sound of her friends' sobbing?
Can she hear the beautiful song sending her to heaven?
Lying here, she doesn't say a word.

I wish I could have seen her once more,
while she could still see me,
while she could still hear me.

I wish I could have held her hand once more,
while it was still warm,
while it could still hold mine.

I kept waiting for tomorrow,
for someday to see her again.
But where are tomorrow and someday?

Yesterday came as today,
Tomorrow will come as today.
All of life
passes through today.

I wish I had not let **TODAY** slip away.

Now, I can only pray
that she may rest in eternal peace.

한 10년이 지난 후 그는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에 교수로 임명되어 North Carolina로 이주하는 바람에 만나는 것이 뜸해졌으나 그 통에 장거리 여행을 즐기기도 했다. 늦은 가을에는 북쪽 버펄로에서는 느끼지 못한 따뜻한 날씨에 같이 골프를 치면서 휴가를 즐기기도 했다. 그의 아내는 우리가 Mrs. Ro라고 불렀는데 그녀는 간호사직을 퇴직하고는 취미로 골프를 열심히 쳐서 무척 잘 쳤다.

내 친구 노대수는 자기의 전공분야에 두각을 나타내 열 권 이상의 전공 서적을 출간했고, 인근 Durham에 있는 Duke 대학에서 교수직을 받고 또 미국 대표로 Expert Committee on Public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Nations에서 봉사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 개의 Award와 National Defense Service Medal, Vietnam Service Medal, Bronze Star Medal 등의 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운명의 신을 피하지 못해 2007년 3월 64세의 젊은 나이로 집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형제 같은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다. 그 후 매년 늦은 가을에 찾아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아내를 위로하면서 같이 골프를 즐겼다. 골프도시로 유명한 근처의 Pinehurst, NC로 놀러 가기도 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녀가 한 고등학교 골프팀을 이끌던 골프 강사를 골프장에서 만나 사귀더니 결혼함으로써 우리의 발길은 자연히 멈추어졌다.

나도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주 대위’가 되어 돌아온 후 근무지가 진해인 덕분에 멀지 않은 부산 여자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지금은 은퇴해서 워싱턴 DC 근교인 노스 버지니아에서 동지를 틀고 살고 있는데, 부산의 경남여고를 나온 아내 동창을 통해 서울 의대를 졸업한 나의 동문 네 분을 같이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동문 네 분은 모두 해군 출신이어서 더욱 반가웠다. 또 부인들은 모두 이화여대 출신이어서 SKEN (Seoul 의대, Kyungnam 여고, Ewha 여대, Navy)이라는 멋있고 흥미로운 이름의 모임을 갖게 되어 지금도 열심히 모두 모여서 식사와 담소를 하고 또 동문끼리 모여 마작도 하고 가끔 골프도 같이 치게 되었다. 더욱이 한국 정부에서 월남참전 보상금으로 매년 일 년치 골프장 이용요금만큼 보내주니 더욱 감사할 뿐이다.

이렇듯 나의 해군 군의관 시절은 단순히 병역의무만 하는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전역 후 나의 일생에 큰 변화와 기쁨을 마련해 주었고 되돌아 생각해 보면 나의 해군 군의관 시절은 즐거웠고 재미있었다.

2025-26 회비 및 후원금 현황

남명호 54대 회기 (2025년 7월 1일 ~ 2026년 6월 30일)

1950	나수섭	1954	이동식	1956	박상기
1958	김부근 김석희 김시한 김해암 문석면 류치열 박호현 송세엽 신상균 이만택 이종국 이종용 최병두				
1959	나길진 서경화 신한수 이종수 최대한 최용천 한성업				
1960	권기홍 김인환 김창수 김택경 박명근 박정우 박준명 오신중 원관희 이광준 이덕승 이종석 임종원 정오영 최홍락 한성수				
1961	강창욱 곽동린 고의결 김성준 김영철 김예흠 김화섭 박승균 박준환 박호성 안창현 이동해 이재승 이준우 이희백 장성환 장태환 정두현 조경하 조은순 진창건 최용성 한수웅 한혜원 황현상				
1962	권익현 김석식 김한중 남성희 민경환 박종건 박종승 박찬형 손영진 오태요 이기범 이상무 이상원 이선택 이석우 장항순 정정수 조명호				
1963	고영희 김광섭 김주승 김태웅 김태형 김택수 김학중 마동일 박승균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윤영옥 윤영섭 윤진수 이병봉 이수인 이승현 이종두 이흥빈 이충열 임춘수 장세곤 장인호 정관호 조한원 진병학 한광수 한기현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김창만 김태환 송원길 신두식 양운택 오수환 오유섭 유광현 윤희기 이광신 이정은 이정필 이재풍 이주영 이흥표 조성준 조창언 최준희 한태진 홍선경				
1965	권평일 구경회 김길중 김덕진 김욱현 백길영 손광호 신백효 이범석 이재진 이정의 이중희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장재찬 정길화 조성구 최동욱 채도경 채무원 최동욱 한원민 한재은				
1966	김용재 김우신 김의신 김진수 김충규 남궁승 윤명선 이명희 이영일 이영은 이인수 장한교 조규웅 조의열 최순채 최영자 한동수 한일성 허서룡 황 철				
1967	강명식 김동수 김성철 김인귀 김재석 문경웅 우명식 우준균 유 달 유진일 이근웅 이민우 이영균 이우용 이정화 이준식 이진수 이태안 최무웅 최승웅 한서동 한영수				
1968	고남규 김 철 김경인 김영남 김영덕 김재관 김주평 김진홍 김태기 김희주 노영일 박정식 서영일 서윤석 송창호 신용계 신희식 안극환 안세현 유우영 윤병인 이건일 이병순 이한홍 임공세 정재성 주광국 차재철 최 철 홍광신				
1969	김병오 김중권 김창남 도상철 박수웅 안병일 양재관 엄규동 오선웅 육순재 윤희윤 이종호 이치훈 임안무 임웅규 전덕성 정한규 천양국 최종일 최종진				
1970	김형달 문성길 박홍식 방준재 송요준 여준구 오석일 유종현 장극기 장현식 조남현 조영갑 홍 건				
1971	강유구 강태수 김성환 김영철 김유식 김일영 김제홍 김창구 김효순 김 훈 노재홍 박동수 박상호 배성호 서상헌 서정자 양성훈 오동환 오상현 온기철 이성길 이종일 이종준 이희영 이창우 장문석 장 철 정인용 최영철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1972	김광호 김재석 김현배 석창호 오용호 이신재 이철재 장병호 정균희 정진우 정희현				
1973	김정용 나두섭 문대옥 민인기 박진섭 서인석 송정자 심완섭 이계석 이영복 이인철 조재종				
1974	구재훈 권철수 유영준 임자은				
1975	김원정 김자역 박인영 왕규성 전경배 조철영 한 일				
1976	김정아 한승신	1977	김동훈 박정식		
1978	권오기 조경구	1979	최대웅		
1980	강창석 박남훈 신성식	1981	남명호		
1983	심인보 오도영 전원일	1984	서귀숙 정희국		
1985	김자성	1989	이선규		
1991	강민종	1999	김정훈 한효숙		
2000	박은경	2001	장세권		
2002	이태훈 최태웅	2003	조수정		
2005	윤순호	2008	이익재 이준구		
2009	송경민				

동창회 본부 사무실 이전 안내

2150 WISE St. #4227, Charlottesville, VA 22905
Tel: 516-365-5500 snucmaa@yahoo.com

Zelle을 통한 회비 및 기부금 납부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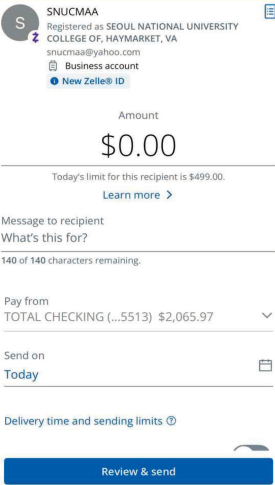
1) Zelle ID는 **snucmaa@yahoo.com**입니다.
Zelle로 송금하시면서 메모로 성함과 졸업년도를 남겨주십시오.

2) 아래의 QR코드 혹은 <https://forms.gle/VQ7rWGus2mubXSAbA>로 회비 및 기부금 내역을 입력해주십시오. (Zelle 송금 없이 내역 입력만으로는 기부가 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십시오)

★ 상세 회비 및 기부금 내역을 입력하지 않으면 회비 및 일반기부금(general) 항목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R 코드



Zelle 입력 화면 예시

Green Project Donation

이종석(60)	225	진홍우(62)	10,000	이영균(67)	100	유우영(68)	500
차재철(68)	100	서인석(73)	100	김원정(75)	100	박인영(75)	15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조경구(78)	100	박남훈(80)	375
전원일(83)	125	서귀숙(84)	100	강민종(91)	100	한효숙(99)	25
장세권(01)	1,000	최태웅(02)	100	장영희(故 장세곤 63 부인)			10,000

Scholarship Donation

이종국(58)	100	이종석(60)	125	한성수(60)	175	김성준(61)	1,000
이재승(61)	100	이준우(61)	100	황현상(61)	100	박종승(62)	100
이기범(62)	375	김태웅(63)	10,000	송용덕(63)	300	장세곤(63)	375
한기현(63)	375	이재풍(64)	500	이흥표(64)	100	김길중(65)	200
백길영(65)	100	채무원(65)	300	윤명선(66)	200	강명식(67)	200
이영균(67)	300	김주평(68)	75	차재철(68)	10,000	박수웅(69)	100
오석일(70)	200	장극기(70)	150	김효순(71)	125	박상호(71)	200
배성호(71)	300	하준영(71)	75	박진섭(73)	100	유영준(74)	125
김자역(75)	1,0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조경구(78)	100
오도영(83)	75						
김형난(故 김승삼 68 부인)		10,000		조영(故 조세진 71 부인)		20,000	

Charity Donation

송세엽(58)	75	이종석(60)	100	박승균(61)	200	이준우(61)	100
황현상(61)	75	홍선경(64)	100	구경회(65)	100	이한중(65)	200
최영자(66)	150	강명식(67)	175	임공세(68)	75	김창구(71)	75
민인기(73)	200	박진섭(73)	100	이인철(73)	1,0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조경구(78)	100	심인보(83)	100		

General Donation

박상기(56)	125	김해암(58)	725	문석면(58)	150	이종용(58)	125
나길진(59)	25	서경화(59)	125	신한수(59)	125	이종수(59)	100
한성업(59)	100	권기홍(60)	1,500	박정우(60)	50	원관희(60)	50
이종석(60)	175	최홍락(60)	250	강창욱(61)	25	곽동린(61)	125
김성준(61)	200	김화섭(61)	125	이재승(61)	125	이준우(61)	175
장성환(61)	200	정두현(61)	125	조경하(61)	100	진창건(61)	175
최용성(61)	75	한수웅(61)	150	한혜원(61)	150	황현상(61)	100
김한중(62)	775	박종승(62)	250	오태요(62)	200	이상원(61)	150
이선택(62)	300	정정수(62)	375	고영희(63)	125	김태웅(63)	1,000
김태형(63)	75	김학중(63)	1,000	송용덕(63)	100	신경호(63)	75
신영규(63)	50	이병봉(63)	875	이종두(63)	125	임춘수(63)	200
장인호(63)	75	조한원(63)	75	진병학(63)	75	한광수(63)	100
강창만(64)	125	권정덕(64)	200	김용두(64)	75	김태환(64)	100
양운택(64)	100	이재풍(64)	400	이흥표(64)	175	조창언(64)	200
최준희(64)	300	한태진(64)	125	권평일(65)	200	신백효(65)	75
이한승(65)	50	임현재(65)	125	정길화(65)	100	채도경(65)	100
한원민(65)	125	이명희(66)	250	장한교(66)	75	조의열(66)	200
김성철(67)	75	문경웅(67)	125	유 달(67)	350	유진일(67)	100
최무웅(67)	125	한영수(67)	75	김영남(68)	225	김주평(68)	200
김진홍(68)	50	김희주(68)	400	윤병인(68)	125	이건일(68)	100
이한홍(68)	50	차재철(68)	75	홍광신(68)	100	김중권(69)	200
도상철(69)	75	윤희윤(69)	100	전덕성(69)	200	김형달(70)	500
장현식(70)	75	방준재(70)	125	홍 건(70)	75	강태수(71)	125
김성환(71)	1,000	김유식(71)	75	김 훈(71)	75	배성호(71)	200
서상헌(71)	75	서정자(71)	400	오동환(71)	200	이종준(71)	200
이창우(71)	50	장정철(71)	75	오용호(72)	200	장병호(72)	100
정균희(72)	1,050	나두섭(73)	300	박진섭(73)	100	심완섭(73)	100
권철수(74)	125	유영준(74)	50	박종희(75)	2,500	왕규성(75)	50
조철영(75)	100	김정아(76)	75	한승신(76)	75	김동훈(77)	400
권오기(78)	75	조경구(78)	100	강창석(80)	100	서귀숙(84)	100
김자성(85)	75	이선규(89)	300	김정훈(99)	100		
故 최창송(58, 부인)		10,000		故 이능석(63, 부인)		1,000	
故 김대중(76, 부인)		1,000					

Research & Fellowship Donation

박명근(60)	250	김성준(61)	200	한광수(63)	375	이흥표(64)	100
백길영(65)	75	박수웅(69)	100	심완섭(73)	1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25,100	조경구(78)	100	남명호(81)	10,000		

AASCDTF Donation

김성준(61)	75	한재은(65)	100	김정아(76)	100	한승신(76)	100
조경구(78)	100						

2026-27 회비 및 후원금 현황

55대 회기 (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1958 김해암	1959 서경화	1960 김인환 이광준 최홍락
1961 김영철 김예흠 조경하 최용성 한수웅 한혜원		
1962 오태요 이기범	1963 고영희	1964 강창만 이정필
1965 정길화 한재은	1966 김우신 김진수 이명희 이인수	
1967 이우용 故 이준식	1968 김영덕 서윤석 윤병인 최철	
1969 이치훈	1971 장문석 장철	1972 김현배
1974 권철수	1983 오도영	2008 이익재

Scholarship Donation

이기범(62) 375	김태웅(63) 8,000	조영(故 조세진 71 부인) 16,000
-------------	---------------	------------------------

General Donation

김해암(58) 50	조경하(61) 100	오태요(62) 200
김태웅(63) 2,000	정길화(65) 100	이인수(66) 25
서윤석(68) 1,000	장 철(71) 100	
故 이준식(67 부인) 2,000	조영(故 조세진 71 부인) 4,000	
AASCDTF Donation	한재은(65) 100	